VOL 93

HELLO NEXEN
MAGAZINE

2023 AUTUMN

INFINITE

미래의 가능성, 무한한 확장으로 피어나다

WE GOT YOU,
MY NEXEN UNIVERSE

헬로 넥센

INFINITE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에게
양을 그려달라는 어린왕자.
여러 마리의 양을 그려줘도
내켜 하지 않는 소년에게
“갖고 싶은 양은 여기 있어”라며
무심하게 상자 그림을 건네자
어린왕자는 환하게 웃으며 얘기한다.
"이게 내가 바란 양이야."

상자에 담겨 있는 양은
크기도 색도 모양도 어린왕자의
생각에 따라 끝없는 변주가 가능하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 더욱 가치 있는
삶의 소중한 것들이 우리들의 히든박스에도
가득 담기는 즐거운 상상에 빠져본다.

www.nexentire.com

HELLO NEXEN MAGAZINE

2023
AUTUMN

VOL 93

헬로우 넥센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23년 10월 4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충렬로 355 넥센타이어(주)
담당 문화혁신팀
이재엽 팀장, 김희진 책임
기획 및 출판 (주)대통기획
02-2269-3613
ISSN 2765-2904

친환경 환경부

헬로우 넥센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SPECIAL THEME : INFINITE

6 **오프닝** 내일이 더 기대돼! 우리의 가능성은 자체발광 중!
8 **과학 에세이** '빅뱅 이론' 한 점에서 시작된 무한한 우주의 세계
12 **일상을 깨우는 여행** 내 안의 포토그래퍼를 깨우다! 인생사진 명소에서 감성 한 컷
18 **넥센인의 pick** 숨겨왔던 내 안의 무한 가치! 전격 공개

STATION 1

22 **ISSUE 1**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5라운드 트리플 포디움 달성
24 **ISSUE 2** 다양한 협업 통해 디자인 철학 알려…
28 **ISSUE 3** 사내 원데이 클래스 '칵테일 만들기 편'
30 **ISSUE 4** 파트너사 '맨시티'와 함께하는 어린이 풋볼 아카데미 성료
32 **ISSUE 5** 한 여름 밤의 어울림의 장
34 **ISSUE 6** 양산공장에 불어오는 솔선의 변화, 환경정화활동부터 사내 캠페인까지!
36 **ISSUE 7** 프리즘과 협업 라이브 방송 '넥스트레벨 콘서트' 개최
38 **ISSUE 8** 한걸음 더 다가가고, 한마디 더 나누는 시간 '멘토링 종료식 행사'
40 **ISSUE 9** 상상과 호기심으로 빛나는 N젤 어린이집 미니 전시회
42 **TIRE TECH** 타이어테크 이천총판점

STATION 2

48 **넥센 in Global** 넥센타이어 유럽 영업&마케팅 그리고 NETC
52 **오늘도 해피타임!** 창녕공장의 정오를 깨우는 서프라이즈 이벤트
56 **우리 가족 DIY** 커피 찌꺼기의 업사이클링! 생명을 품은 화분으로 재탄생

STATION 3

62 **컬처 가이드** 내 안의 무한한 가능성과 마주하는 시간
66 **미래참견시점** 다양한 이종 사업의 결합! 커넥티드카의 시대
70 **핫템 모아보기** 때론 멋스럽게, 때론 스마트하게! 평범함을 거부한 '독서의 반란'
74 **365 건강백서** 말도 찌고 나도 찌고! 걷잡을 수 없는 식욕의 계절
78 **NEWS**
82 **함께해요**

SPECIAL THEME

오프닝

과학 에세이

일상을 깨우는 여행

넥센인의 pick

VOL 93

2023
AUTUMN

INFINITE

거대한 우주가 수억 년 전 '하나의 점'에서 비롯됐다는
빅뱅 이론처럼 아주 작은 시도가 변화의 폭발을 일으키는
씨앗이 될 수 있다. 매일 도전해 온 소소한 일상의 챌린지들이
어느새 삶의 방향을 만들어 더 나은 내일을 살게 한다.
결실의 계절, 차곡차곡 쌓아온 성실한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무한한 가치를 수확하는 즐거움을 만끽해 보자.

내일이 더 기대돼!

SPECIAL THEME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진 '오늘의 나'를 만나는 즐거움! 대단한 자기계발과 극적인 변화가 아니어도 우리는 일상의 사소한 노력 속에서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오늘보다 더 기대되는 넥센인의 내일! 무엇으로 빛나고 있을까?

무한으로 이어지는 '운동 릴레이' 챌린지

올해부터 저만의 챌린지로 매월 끊이지 않고 운동하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걸스힙합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일대일 기구 필라테스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수영 수강입니다! 몸이 천근만근인 날도 억지로 운동을 하고 오면 성취감에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차영혜

새벽 러닝 중인 '초보 러너'

매일 새벽마다 달리기를 실천 중입니다. 엄청난 페이스로 달리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도 좋아지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하프 마라톤 완주에도 도전해 보려고요. 오늘도 러닝 타임!

황준수

오운완으로 다져진 '어깨깡패'

꾸준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운동에 식단관리까지 병행하면서 근육량과 지방을 동시에 키워갔어요. 현재 어깨 23인치까지 만들었습니다! 제 꿈은 씨름부 선수 같은 직장인이에요~

박재준

우리의 가능성은 자체발광 중!

'디지털 디톡스'로 힐링하기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다들 핸드폰 보시죠? 조금이나마 전자파를 보호하고 목 디스크 완화 및 눈의 피로감을 덜기 위해, 버스나 전철에서 '핸드폰 보지 않기'를 저만의 규칙으로 정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노력을 요하지 않고 작은 변화를 주는 행동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유재훈

나이스샷을 외치는 그날까지! 골프 라이프

하나를 배우면 다른 하나를 까먹고, 하나를 고치면 다른 하나를 틀리는, 아직은 배울 게 많은 초보 골퍼입니다. 솟구쳐 오르는 성질과 점수보단, 솟구쳐 오르는 적중률과 희열로 성장하고 재미를 느끼는 제 자신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민

게임 마니아의 덕질은 진화 중

Game is my life! 게임할 시간은 없지만 구매할 시간은 있습니다! 물론 나의 라이브러리 리스트에 어떤 게임이 있는지는 모른다는 게 문제지만요. 손오공이 드래곤볼을 수집하듯 PC 부품 모아서 조립하고 설정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습니다. 당근해서 수익은 덤이에요.

최재석

개집 짓기 완성! '초보 목수'의 도전

남들은 여름 휴가에 산으로 바다로 놀러갈 때 저는 마당에 키우는 반려견을 위해 개집을 만들었어요. 비록 초보 목수이지만 마음만은 장인! 매일 내가 만든 개집에서 잘 자는 반려견을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정해철

이번 생에 '아빠'는 처음이라~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내 인생에 아빠는 처음이라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도 항상 아이를 만족시켜주려고 생각하는 내 안의 또 다른 내가 대견할 때도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로 우리 가족이 즐겁게 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설계해 봅니다.

정우영

'책 읽기'에 푹 빠져, 오늘도 빛나는 독서등

매달 회사 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 두 권을 빌려 읽었더니 독서량이 상당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은 사서 보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매달 어떤 책이 나올지 기대하면서 신간 리스트를 구경하고 빌려보는 것도 재밌네요. 오늘보다 더 기대되는 저의 내일은 독서등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신용수

이강환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겸임교수

'빅뱅 이론' 한 점에서 시작된 무한한 우주의 세계

우주는 138억 년 전 빅뱅으로 탄생하여 지금까지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시작된 빅뱅 이론은 점점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는 이제 우주의 나이를 정확하게 셈할 수 있으며, 미지의 영역인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나아갈지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1937년 로스앤젤레스 윌슨산 천문대에서 100인치 망원경의 접안렌즈를 통해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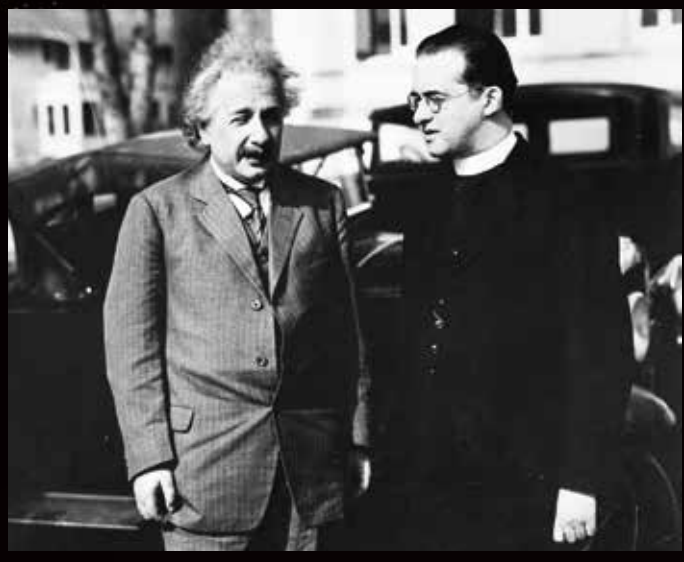
과학이 된 우주론

천문학에는 우주가 탄생하고 변화해온 과정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구하는 '우주론(cosmology)'이란 분야가 있다. 사실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신화와 종교의 영역이었다. 전 세계에는 20개가 넘는 우주 창조 신화가 있다고 한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주론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1915년 앨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이 일반상대성이론을 발표하면서 전체 우주를 연구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가 생겼고, 1929년 에드윈 허블(Edwin Hubble)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신화와 종교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우주론이 과학의 탐구 대상이 되었다.

허블이 발견한 것은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를 중심으로 둘러싼 모든 것이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말일까? 다행히 인류는 더 이상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다.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현상은 우주가 공간적으로 팽창할 때 관측될 수 있는 현상이다. 이것은 우주에 있는 어떤 지점에서 관측해도 똑같이 보인다. 우주에는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 우주론이 과학이 되도록 해준 이 발견은 허블의 이름을 따서 '허블의 법칙'이라고 불렸다.

그런데 사실은 허블보다 먼저 우주의 팽창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다. 벨기에의 사제이자 천문학자인 조르주 르메트르(Georges Lemaître)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을 우주에 적용하여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미 많은 은하에게서 적색이동 현상이 관측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주의 팽창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을 담은 논문은 허블의 논문보다 2년 먼저인 1927년에 발표되었지만, 발표된 곳이 벨기에의 저널이었기 때문에 학계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르메트르의 논문이 나중에 알려진 이후 천문학자들은 르메트르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제기하였다. 결국 2018년에 열린 국제천문연맹(IAU,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총회에서 천문학자들은 '허블의 법칙'을 '허블-르메트르의 법칙'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인슈타인과 천문학자 조르주 르메트르

점점 커지는 우주, 빅뱅 이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쉽게 우주의 과거를 생각할 수 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니 과거에는 우주의 크기가 더 작았다는 의미가 된다. 과거로 갈수록 우주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면 언젠가 우주의 크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생각에서 나온 이론이 '빅뱅 이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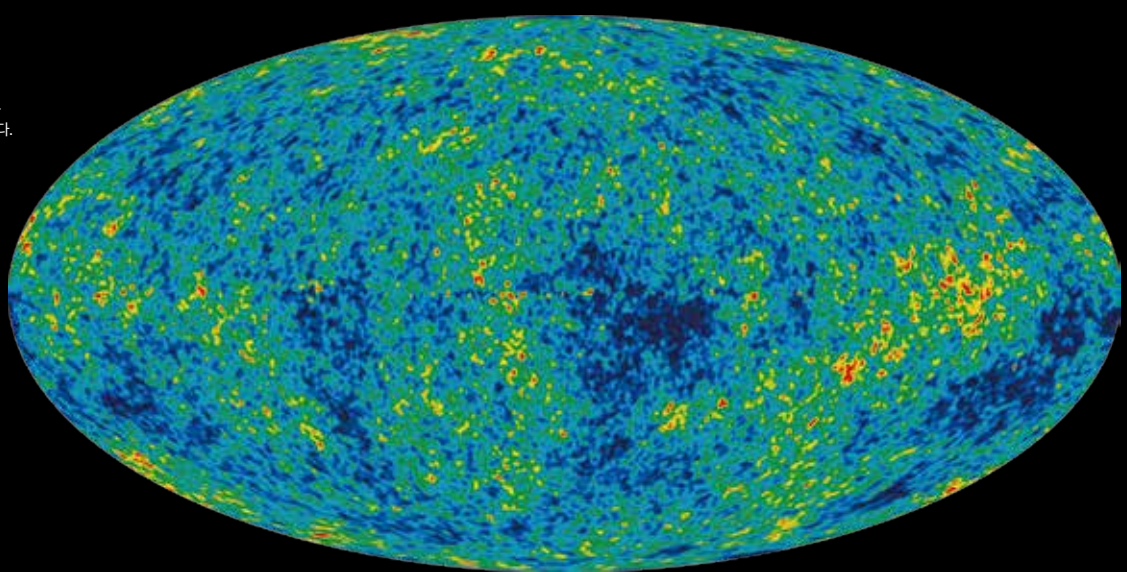
빅뱅 이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빅뱅으로 탄생한 이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빅뱅 그 자체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다. 빅뱅 이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이론인 인플레이션 이론을 제안한 앨런 구스(Alan Guth)는 이렇게 말했다. "빅뱅 이론은 무엇이 폭발했는지, 왜 폭발했는지, 그리고 폭발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지 못한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탄생한 이후에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지만, 우주가 탄생한 순간부터 10^{-43}초 사이의 극히 짧은 시간은 여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 시기를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Max Planck)의 이름을 따 플랑크 시대라고 부른다. 이 시대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학 이론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아주 작은 규모를 성공적으로 다루는 이론인 양자역학과 아주 큰 에너지를 성공적으로 다루는 이론인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합하는 이론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미래에 우리는 두 이론을 통합하는 '모든 것의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른다. 그 전까지는 과학으로 플랑크 시대를 다룰 수 없다. 빅뱅 이론은 결국 빅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못하는 이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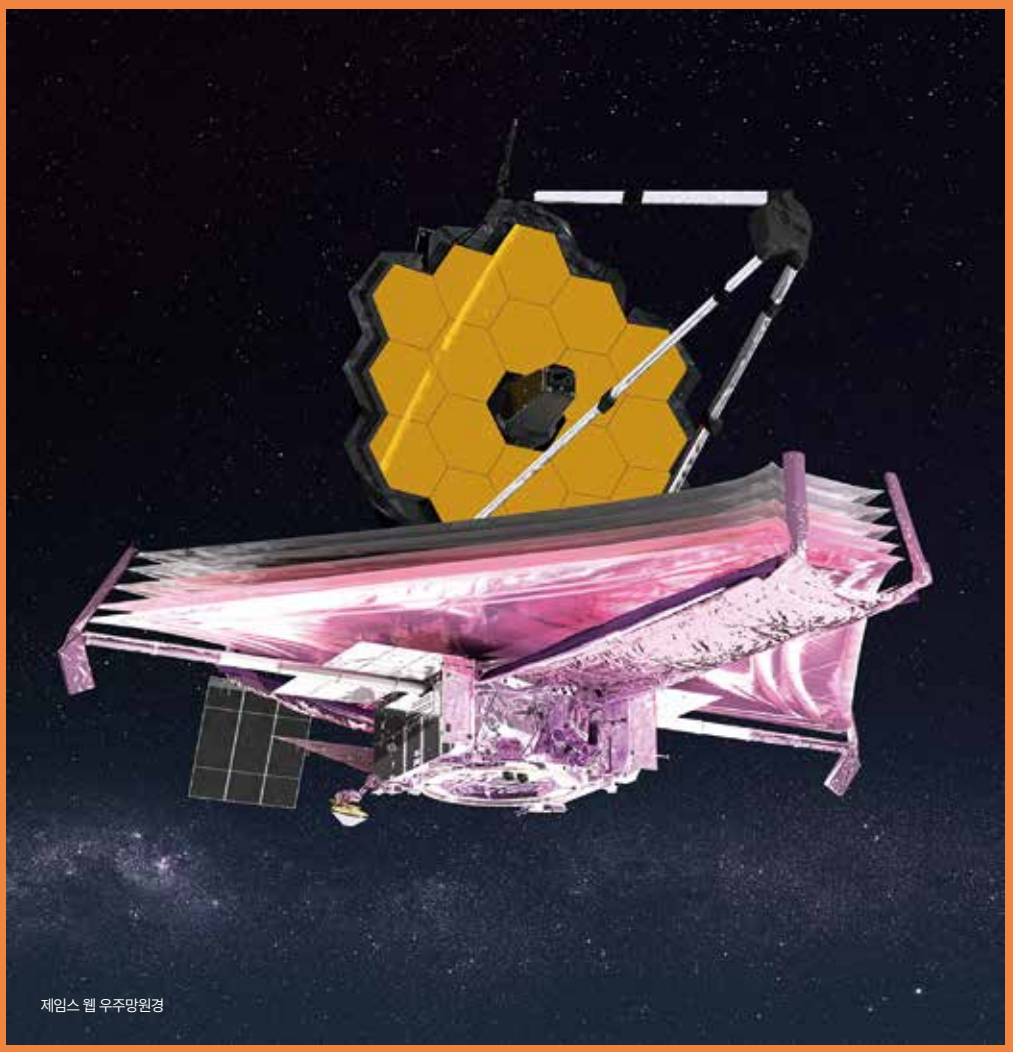
"빅뱅 이론은 무엇이 폭발했는지,
왜 폭발했는지,
그리고 폭발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지 못한다."

- 앨런 구스(Alan Guth)





빅뱅 이론을 정설로 만들어준 우주배경복사. WMAP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사진이다. 붉은색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곳이고 푸른색은 온도가 낮은 곳이다. 온도의 차이는 10만 분의 1도 정도이다. 이 미세한 온도 차이 때문에 별과 은하들이 태어났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빅뱅 이론의 발전 – 우주론의 표준 모형

모든 이론이 그렇듯이 어떤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자마자 정설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과학자들의 엄밀한 검증을 거친 증거가 충분해야 정설로 인정받는다. 1948년에 처음 등장한 빅뱅 이론 역시 수많은 검증의 과정을 거쳤다. 우주가 어느 순간 한 점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같은 모습으로 존재했다는 '정상상태 우주론'과 오랜 경쟁을 하던 중 1964년 '우주배경복사'가 발견되면서 빅뱅 이론은 정설이 되었다.

빅뱅 이론의 초기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던 몇 가지 관측 현상들은 1979년 '인플레이션 이론'으로 설명되었다. 1970년대부터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관측 결과로 우주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보통 물질' 뿐만 아니라 중력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검출은 되지 않는 '암흑물질'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1998년에는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우주에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정체불명의 '암흑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알아낸 사실에 따르면 우주는 138억 년 전 빅뱅으로 태어난 직후 급격히 팽창하는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지금은 약 70%의 암흑에너지, 약 25%의 암흑물질, 약 5%의 보통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이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우주 탄생과 진화의 역사를 우주론의 표준 모형이라고 한다.

우주론의 표준 모형은 한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서 계속 수정되며 발전한 것이다. 최근에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탄생 직후의 우주의 모습을 더욱 자세히 볼 수 있게 해주고 연일 새로운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발견들이 나온다면 우주론의 표준 모형이 다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처음의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보완되긴 했지만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의 기본 개념은 오랜 시간의 검증을 거치면서도 살아남았다.

빅뱅 이론은 우리 우주가 138억 년 전에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다고 이야기한다. 개인적으로 빅뱅 이론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였다. 이것은 우리 인류가 모두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전 우주가 하나였다는 것이다.

글, 사진. 차니포토

정해진 포토존에서 비슷한 구도로 촬영된, 진부한 여행 사진은 이제 그만! 나만의 감성과 몇 가지 촬영 노하우만 있으면 모두의 공간이 나만의 특별한 작품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자, 평범했던 밤하늘이 동화 속 판타지를 꿈꾸고, 해 질 녘 찰나의 시간이 이야기를 품게 된다. 국내에 숨겨진 보석 같은 여행지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인생사진을 연출할 수 있는 촬영 TIP도 함께 만나보자.

내 안의 포토그래퍼를 깨우다!



뷰의 정석, 제천 비봉 하늘전망대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문화재길 166
이용시간 매일 10:00~18:00 (주말 09:00~18:00)
케이블카 일반 18,000원 / 크리스탈 23,000원

국내에도 해외 못지않게 멋진 뷰를 가진 전망대가 많다. 멋진 경치를 보려면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전망대도 있는 반면, 제천의 비봉 하늘전망대는 케이블카로 9분만 올라가면 해발 531m의 비봉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케이블카 비용이 저렴한 편은 아니나 시간과 체력 소모 없이 정상에 올라 멋진 뷰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나름 합리적이다. 일반과 크리스탈 두 개로 나눠지는데 크리스탈 케이블카는 바닥이 통유리로 되어있어서 올라가는 내내 스릴을 즐길 수 있다.

비봉 하늘전망대는 한국관광공사 안심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다.

전망대에 서면 눈 앞에 펼쳐지는 제천의 아름다운 산수를 360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다. 잔잔하고 너른 충주호의 풍광이 일상의 무게를 위로하듯 펼쳐진다. 전망대에는 카페와 편의점과 같은 시설과 산책로, 패러글라이딩 탑승장, 포토존 등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전망대 인생사진

"촬영자와 모델의 높이 차 이용하기" 보통 전망대에서, 촬영하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수평으로 서는데, 그렇게 되면 전망대의 느낌도 나지 않고, 밑에 펼쳐지는 멋진 뷰를 인물과 함께 담을 수 없다. 층이 나눠져 있는 비봉 하늘전망대의 경우, 건물의 구조를 활용하면 좀 더 멋진 사진을 연출할 수 있다. 모델이 한 층 아래 멋진 뷰가 보이는 곳에 서있고 카메라를 든 사람은 한 층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촬영하는 방식이다. 모델과의 거리와 높낮이를 달리함으로써 웅장한 풍광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다.





식물과 인생사진

"인물의 눈높이에서, 다리는 허벅지까지"
초록색 배경에서 인물이 묻히지 않도록 촬영하기 위해서는 상의는 흰색을 입도록 한다. 단, 팜파스그라스의 경우 잎이 날카롭기 때문에 긴바지 혹은 롱스커트를 입고 가야 한다. 모델의 다리가 길어 보이게 카메라의 위치를 너무 아래로 내리기 보다는 인물의 눈높이에 맞춰보자. 그리고 다리를 무릎이나 발목 등의 관절이 아닌 정강이나 허벅지 등에서 잘리게 구도를 잡으며 키가 큰 팜파스그라스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감성 포착, 태안 청산수목원

충남 태안군 남면 연꽃길 70
이용시간 4~5월 09:00~18:00 /
6~10월 08:00~19:00 / 11~3월 08:00~17:00
입장료 대인 9,000원

바다와 산, 갯벌 등 볼거리가 많은 충남 태안을 가을에 꼭 가야 하는 이유! 바로 청산수목원 때문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연꽃 품종을 보유하고 있고, 계절마다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는 산책로와 황금메타세쿼이아 등 600여 종의 나무들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은 10월부터 관람객의 발길이 더욱 많아진다. 가을에 장관을 이루는 팜파스그라스와 핑크뮬리의 이국적인 풍경을 보기 위함이다. 서양 억새라고도 불리는 팜파스그라스는 초록 줄기로 시작해서 베이지색의 깃털 같은 억새로 풍성한 모양을 하고 있다. 2m가 넘는 높이 덕분에 성인들도 충분히 팜파스그라스에 파묻혀 촬영할 수 있다. 전국에 다양한 팜파스그라스 명소 중에서도 청산수목원의 규모는 상당하다. 환상적인 초록 풍경에 이어 분홍빛으로 넘실대는 핑크뮬리도 놓칠 수 없다. 감성적인 가을 식물을 활용해 인물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빛을 등지고, 천안 핀스커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해솔 1길 27-29

이용시간 매일 11:30 ~ 22:00

앞서 떠나봤던 청산수목원에서 언급한 핑크뮬리는 가을만 되면 SNS를 도배하다시피 한다. 환상적인 분홍 물결이 넘실대는 사진 속 핑크뮬리에 반해 실제 현장을 가면 흐릿한 색감에 다소 실망할 수 있다. 최대한 날씨가 맑고 햇빛이 강한 날에 방문해야 선명한 분홍빛을 찍을 수 있다. 전국 각지의 다양한 핑크뮬리 명소 중에서도 천안 핀스 커피의 풍경은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예쁜 핑크뮬리에 일몰의 역광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핑크뮬리 밭에서 내려다보이는 방향으로 해가 지기 때문에 노을 빛이 정말 아름답다. 카페를 바라보고 사진을 찍을 경우 노을이 얼굴에 스며들어 분위기 있게 촬영되며, 반대로 노을 쪽을 바라보고 촬영할 경우, 붉은 핑크뮬리의 이색적인 풍경을 담아낼 수 있다. 보통 역광하면 배경이 하얗거나 인물이 어둡게 나와서 일반적으로 피하게 되지만 역광사진을 찍는 방법만 안다면 충분히 예쁘고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역광과 인생사진

"스마트폰으로 완벽한 노을 사진"

지는 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구도를 잡은 후, 초점을 피사체에 맞추고 터치한다. 피사체에 초점을 맞춘 순간 해의 노출이 너무 날아가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밝기를 내려준다. 적당하게 노출이 내려가면 촬영을 하고, 추후 보정 시 기본 기능 중 '그림자'와 '따뜻함' 수치만 + 방향으로 올려주면 보기 좋은 역광 사진이 완성된다.

*아이폰 12pro부터 탑재된 Apple ProRAW 기능을 이용하면 더 넓은 범위의 색 영역을 보정할 수 있다.





별빛이 내린다

연천 당포성 & 정선 타임캡슐공원

경기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
강원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산70-26

임진강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자리잡은 당포성. 연천의 고구려 3대 성 중에 한 곳으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천연 절벽을 이용했으며 동쪽으로 석축 성벽을 높게 쌓았다. 성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별과 하늘을 관찰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이곳은 민가가 주변에 없어 건물이나 가로등이 만드는 빛이 없고, 공해가 적은 청정지역으로 별이 잘 보일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9~10월 중에는 당포성 별빛 축제가 진행되기도 한다.

또 하나 별 관측으로 유명한 곳은 정선군 질운산 중턱에 위치한 타임캡슐공원! 국내 은하수 보기 좋은 곳을 검색하면 추천 목록 베스트에 반드시 올라가는 곳이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 두 주인공이 타임캡슐을 묻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조성된 곳이다. 실제 여행객도 이곳에서 타임캡슐을 이용할 수 있다. 타임캡슐공원은 해발 850m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주변이 모두 고냉지 채소밭으로 되어 있어 당포성과 마찬가지로 빛의 방해가 없는 특성상 육안으로 선명한 별을 볼 수 있다.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사진으로 별을 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포 크기의 렌즈 없이도 쏟아지는 별을 카메라에 담아보자.



별과 인생사진

"삼각대는 필수, 초승달일 때 출사" 출사를 나가기 전에 습도는 낮은지 미세먼지와 구름이 적어 가시거리가 좋은지 체크하며 달의 모양이 최대한 초승달에 가까울 때 별 관측을 한다.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활용해 다양하게 촬영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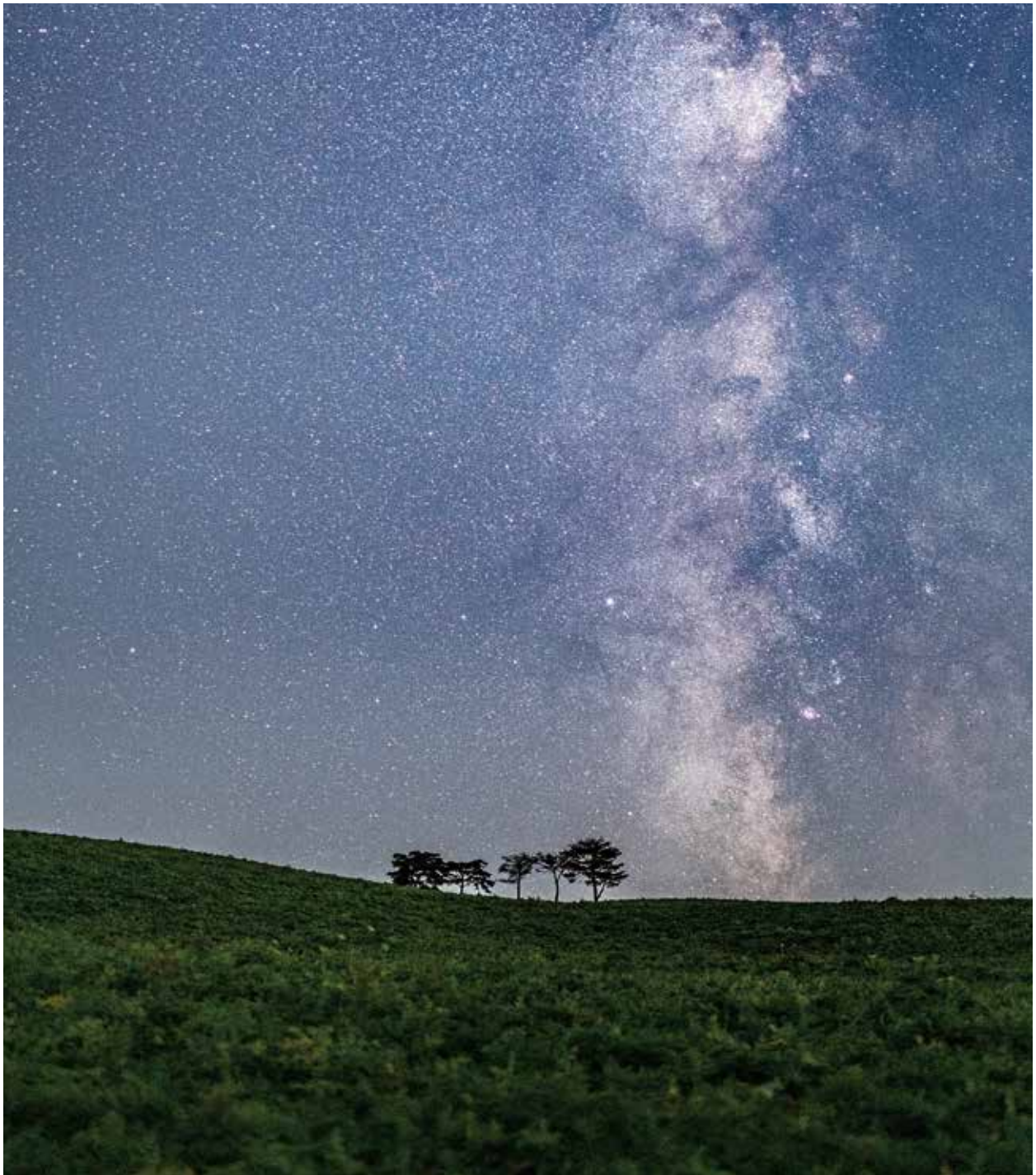
갤럭시 스마트폰

프로모드를 이용해 셔터스피드 10~15초, 조리개 최대 개방, ISO 1600~3200 사이로 조절

아이폰 야간사진 모드로 전환

DSLR

조리개 최대 개방, ISO 1600정도부터 조절, 셔터스피드 10~15초 정도로 설정, 초점은 MF(수동초점)으로 변경해서 가장 잘 보이는 밝은 별을 기준으로 초점링을 돌려서 맞춤.



설문기간: 2023. 9. 5 ~ 9. 7
참여자: 135명

숨겨왔던 내 안의 무한 가치! 전격 공개



야생의 세렝게티 같은 직장생활을 해오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단련된 내공들! 넥센인들에게 감춰져 있던 초인적인 능력과 무한한 가치에 대해 셀프 PR 시간도 가져보자.

남들은 모르는 직장인으로서
장착한 나의 초능력은?

업무의 쓰나미가 몰려올 거란 '예감적중' 32.14%

회의 및 지시의 맥을 짚어내는 '눈치코치'	24.29%
실수와 실패 앞에서 굳건한 '강철심장'	22.14%
실패 없는 점심 메뉴 선택 '절대미식'	11.43%
기타	10%

↳ 주말에도 정시 기상하는 '출근본능' - 신미진
보고서의 맥을 집는 '빨간펜' - 김상문
오늘 욕을 먹을 예정이라는 것을 아는 '미래예지' - 박재준
필요할 때는 나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적당한 '은둔술' -이태민

오늘도 회사에서
단련 중인 생존 무공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아는 '관심법' 32.61%

상대와 역할에 따라 '둔갑술'	26.09%
출퇴근길 기적의 '축지법'	21.01%
업무량이 폭발할 때 '분신술'	12.32%
기타	7.97%

↳ 퇴근 전 잔업을 빠르게 쳐내는 '가지치기법' - 남현지
퇴근이 다가오면 빠르게 현장 정리하는 '108개의 손' – 문진석
싫든 좋든 티나지 않는 '복면술' – 유민
빠르게 업무 처리하고 싶을 때 '키보드 타조법' – 정주희
동료들이 도와줘야 일이 빨리 끝나니 '커피 조공술' - 오동진
오늘 또한 체력으로 버텨봅니다 '철포삼' – 김남희

스스로 터득한
나만의 회사 생활 필살기

나와는 다른 사람! 인정하면 inner peace 39.86%

소중한 내 워라밸! 퇴근 후, 업무에게 이별통보!	30.07%
평판은 가꾸는 것! 셀프 모니터링	17.48%
희망고문 NO! 단호박 거절법	9.09%
기타	3.50%

↳ 남들 보다 빠른 칼.퇴.근 - 안혜진
아직도 터득하지 못한 채 열심히 발굴 중 - 양지원
어떠한 업무도 마다하지 않는 긍정 마인드 - 박창근
내가 해야 할 것부터 해 놓고 협조 요청 – 정우영

나의 잠재된 가치를
'물질'로 환산해 본다면?

노력을 차곡차곡 성실형 '적금만기' 35.66%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가치 'NFT'	19.58%
다듬을수록 값이 오르는 '다이아몬드 원석'	16.78%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박 인재 '로또'	11.89%
캐도 캐도 끝이없는 잠재력 '노다지'	11.89%
기타	4.20%

↳ 언젠간 반드시 오를 '재개발 구역' – 송강호
특정 조건만 만들어지면 일 잘할 수 있는 '초전도체' – 송민석
안보이는 빛을 보이는 무지개로 변하게 하는 '프리즘' – 황도인
까면 깔수록 매력 있는 '양파' – 서용준
어디서든 편리한 연결을 추구합니다. '와이파이' – 김종호
꾸준히 밀고 나아가는 '불도저' – 박대희

내 가치로운 삶의
숨은 조력자는?

공감 마을에 사는 '친구 & 가족' 43.05%

손 안의 깐깐한 비서 '스마트폰'	35.10%
배꼽도둑 웃음담당 '유튜버'	9.27%
무해한 힐링메이트 '반려동식물'	7.28%
기타	5.30%

↳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게이밍 PC' – 이우재
텃세 없는 '직장 동료' - 이태민
스트레스 해소에 제격인 '넷플릭스' – 탁세원
나의 최애, 춘식이 아이템들 – 이혜윤
항상 웃게 해주는 아이돌 - 양소영



STATION

VOL 93

2023
AUTUMN

넥센유니버스는 더불어 하나되는 융합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곳이다. 중앙연구소 로비는 시대의 아티스트와
미래의 예술가들이 꿈을 펼치는 캔버스의 역할을 했으며,
깜짝 콘서트로 대중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자발적인 환경정화활동과 사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함께 했던 넥센인들의 활동도 함께 만나보자.

HELLO NEXEN MAGAZINE

ISSUE

TIRE TECH

STATION 1

글. 김남희 책임연구원 레이싱타이어개발팀



넥센타이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5라운드 트리플 포디움 달성

넥센타이어가 2023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하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SUPER 6000 클래스 5라운드에서 넥센타이어를 장착한 선수들이 1,2,3위를 모두 차지하며 트리플 포디움을 달성했다.

지난 8월 19일과 20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5라운드가 '나이트 레이스'로 열렸다.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나이트 레이스인 만큼 19일 당일에만 약 3만 명의 관중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을 방문했다.

넥센-볼가스 모터스포츠의 김재현 선수가 1위, 서한GP의 장현진 선수와 넥센-볼가스 모터스포츠의 정의철 선수가 각각 2위, 3위로 포디움에 입상했다. 김재현 선수는 48분 49초 444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 이어 장현진 선수와 정의철 선수가 각각 2위와 3위에 오르며 넥센타이어의 레이싱 전용 타이어 '엔페라 SS01'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넥센타이어가 공급하는 초고성능 레이싱 전용 슬릭타이어 엔페라(N'FERA) SS01(DRY)은 극한의 주행 환경에서도 우수한 노면 접지력과 제동력을 제공한다. 넥센타이어를 사용하는 '넥센-볼가스 모터스포츠', '서한GP', 'CJ로지스틱스 레이싱'이 출전하는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올해 8라운드로 치러진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5R 1위 김재현, 2위 장현진, 3위 정의철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000 우승자 토크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000 결승 김재현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000 결승 정의철

글. 김희진 책임 문화혁신팀



넥센타이어, 다양한 협업 통해 디자인 철학 알려…

넥센타이어는 지난 7월 서울 마곡에 위치한 넥센중앙연구소 '더넥센유니버시티'에서 강재원 작가와 콜라보 전시를 열고 디자인 철학을 알렸다. 설치 미술가 강재원 작가는 미래의 조각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3D 프로그램상의 모델링 작업을 다양한 형태의 현실 조각으로 연계 혹은 파생하는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금속처럼 매끈하고 단단해 보이는 소재의 원단을 사용해 착시를 일으키는 인플레이터블(공기 주입식) 조각은 송풍기를 통해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기존 조각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다.

넥센타이어의 디자인 철학인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궁극적인 아름다움(Ultimate Sensual, Timeless Movement)'과 그 아래 세 가지 가치 체계인 역동성(Objet with Dynamics), 본질(Objet with Essence), 세련미(Objet with Refinedness)를 바탕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는 타이어를 단순한 제품이 아닌 하나의 예술적 오브제로 바라보고자 하는 넥센타이어의 의도가 담겼다.





Collaboration with 강재원 작가



collaboration with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여기에,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캐릭터 디자인' 전시회도 9월에 개최했다. 디자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류 확대를 위해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과 협업을 진행했다. 이번 협업의 주제는 '창의적인 캐릭터 디자인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차별화'다.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패션제품디자인과 학생들이 10개 팀을 이뤄, 팀별 디자인 결과물을 토대로 제작된 다양한 캐릭터 아이템(키링, 텀블러, 쿠션 등)을 전시했다.

또한, 9월에는 세종대학교 디자인 이노베이션학과 학생들과 협업 전시도 개최했다. 'NEXUS'라는 주제로 열린 전시는 'NEXT WITH US'의 줄임말로, 미래(NEXT)의 주역(US)인 개인, 지역, 공동체가 넥센타이어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넥센타이어의 디자인 철학과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학생들은 8개월에 걸쳐, 디자인에 대한 리서치 및 콘셉트 도출을 통해 넥센타이어 디자인 철학을 재해석한 다양한 시각물을 제작했다. 넥센타이어 디자인 실무자가 학교에 직접 방문해 학생들과 아이디어 교류 및 멘토링도 진행했다.









collaboration with 세종대학교

글. 편집실, 사진. 김정호



퇴근 후, 일일 바텐더로 변신하다
사내 원데이 클래스 '칵테일 만들기 편'



지난 9월 20일 중앙연구소에서는 임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칵테일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가 진행됐다. 즐거운 일터를 만들고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올해 초부터 시작한 '쎈트리 클래스'가 3회차를 맞았다. 칵테일을 만들기에 앞서 증류주와 발효주의 차이, 하이볼의 어원 등 술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알아봤다. 이어진 Q&A 시간에는 가성비 좋은 위스키 추천부터 숙취가 덜한 주류에 대한 질문까지 그간 궁금했던 술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져 나왔다.

본격적으로 칵테일을 만들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바스푼으로 젓는 방법(Stir)과 쉐이커로 흔드는 요령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보는 것 만큼 쉽지 않아 어설픈 장면들이 연출됐지만, 이미 마음만은 일일 바텐더 못지않다. 가을밤 정취를 더할 총 3종의 칵테일 레시피가 공개됐다. 은은한 홍차 향기가 어우러진 티 진토닉, 상큼한 라임과 바질향을 더한 허브 모히또, 이온음료로 달콤함에 포인트를 준 태극주까지 각기 다른 색과 맛의 칵테일을 만들었다. 5명이 1조로 그룹을 지어 클래스가 진행되는 동안, 처음 만난 타부서 동료들과 직접 만든 칵테일로 건배를 하며 친목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MINI INTERVIEW



구조연구팀
최인호 선임연구원

"위스키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워본 것도 재밌었어요. 알쓸주(酒)잡의 시간이었네요. 친구들을 만나면 칵테일을 만들어서 대접해보려고요. 스푼부터 쉐이커까지 제대로 갖춰서 도전할 거예요."



패턴디자인연구팀
추권철 팀장

"일주일에 3~4번은 간단하게 반주를 즐길 만큼 애주가인데요. 직접 제조해보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이네요. 지인들에게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부터 연습 모드에 돌입합니다."



Magazine PJT
정상훈 책임

"술을 못 마시지만 가족들 모이면 해주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어요. 회사 다니면서 업무가 아니면 대화를 나눌 자리가 많지 않은데, 클래스를 하면서 동료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글. 김희진 책임 문화혁신팀



넥센타이어, 파트너사 '맨시티'와 함께하는 어린이 풋볼 아카데미 성료









넥센타이어가 7월 28일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코치진과 함께한 어린이 축구교실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넥센타이어는 프리 시즌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한 맨시티의 파트너사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빅클럽 코칭 체험 기회를 국내 어린이 대상으로 제공하고자 '넥센타이어-맨체스터 시티 FC Football Academy'를 마련했다.

'넥센타이어-맨체스터 시티 FC Football Academy'는 7월 28일 서울시 산하 강서구청과 송파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축구교실회원 초등학생 40여 명을 초청해 경기 파주에 위치한 풋살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맨시티 코치진의 일일 축구 코칭 프로그램 및 맨시티 레전드 선수 숀 라이트 필립스의 사인회, 포토 타임 등으로 진행됐고, 참가한 어린이에게는 수료증 및 풋살화, 가방, 축구공 등 기념품을 증정했다.

넥센타이어는 "2022/23시즌 '유러피언 트레블(프리미어리그, FA컵, UEFA챔피언스)'을 달성한 세계 최고 수준의 빅클럽 코칭 체험을 국내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풋볼 아카데미가 어린이들에게 체력 증진의 시간은 물론 소중한 추억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올해 초 '넥센 윈가드 스노보드팀' 선수단과 함께하는 스노보드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등 앞으로도 유소년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문화와 체험활동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글. 김희진 책임 문화혁신팀

한 여름 밤의 어울림의 장





7월 12일 '더넥센유니버시티'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어울림의 장이 열렸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방영되었던 TV조선 주말드라마 '아씨두리안'이 더넥센유니버시티에서 촬영했던 인연으로 이벤트를 협찬했다. 닭강정, 감자튀김 등이 담긴 케이터링 박스와 시원한 음료를 제공받은 임직원들은 삼삼오오 사내 식당에 모여 간단한 다과와 치맥으로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아씨두리안' 제작팀과 '문화혁신팀'이 함께 준비한 '어울림의 장'이 잠시나마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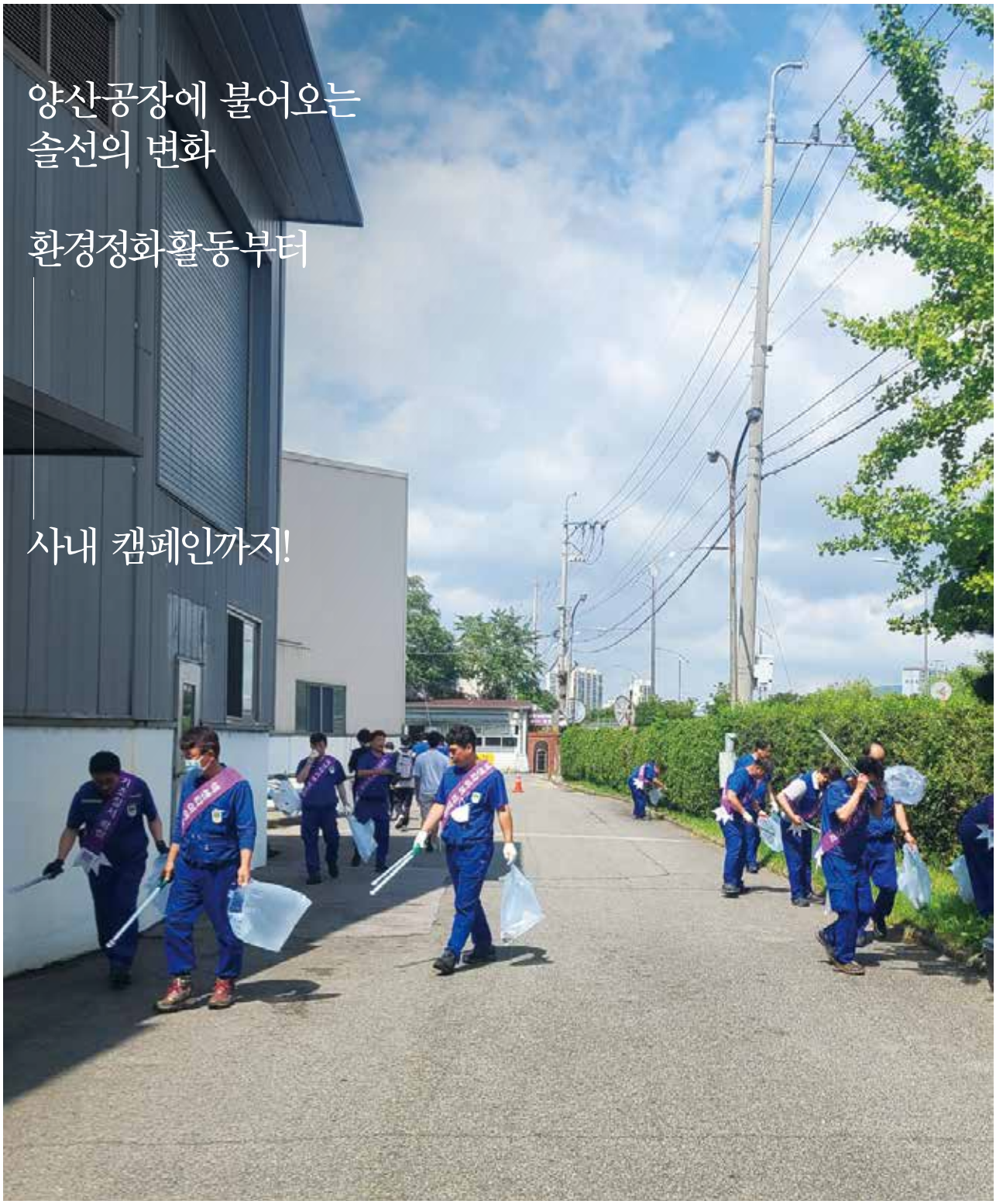


글, 사진. 오윤식 직장 YP금형관리파트

양산공장에 불어오는 솔선의 변화

환경정화활동부터

사내 캠페인까지!



양산공장 직장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올해 3월부터 각 조별 월 1회씩(혹서기 제외) 공장, 외각 부분, 주차타워, 사외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 음료, 기타 쓰레기 등을 치우는 환경정화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9월부터는 환경정화활동과 더불어 사내 캠페인도 함께 시행 중이다.

사내 캠페인 활동은 평소 임직원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동료 간의 예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폭언 및 폭력 금지, 사행성 도박 금지 등을 주제로 메시지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각인하고자 기획됐다.

현장 관리자인 직장부터 솔선수범하여 근무조 교대 시간을 활용해 환경정화활동 및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직원들 스스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자발적 변화를 기대 중이다. 추후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건강한 일터를 지키고 임직원 모두 넥센인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긍정적인 문화의 기반을 다져갈 것이다.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회사의 미래를 위한 일터 혁신을 이뤄낼 계획이다.







글. 김희진 책임 문화혁신팀, 사진. 김정호

넥센타이어, 프리즘과 협업
라이브 방송 '넥스트레벨 콘서트' 개최











넥센타이어가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 '프리즘'과 협업해 '넥스트레벨 콘서트'를 개최하며 MZ 세대와의 소통을 했다. 넥센타이어와 프리즘이 공동 개최한 '넥스트레벨 콘서트'는 댄스팀 '훅(HOOK)'과 윤태진 아나운서가 함께 하는 퍼포먼스 & 토크 콘서트로 넥센중앙연구소 '더넥센유니버시티'에서 6월 29일에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넥센타이어가 국내 업계 최초로 시행한 타이어 렌탈 및 방문 장착 서비스 '넥스트레벨(NEXT LEVEL)'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잠재적인 소비층 MZ 세대에게 소개하고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발견형 쇼핑'을 지향하는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인 프리즘(PRIZM)과의 콜라보를 통해 타이어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넥스트레벨(NEXT LEVEL)' 서비스를 소개했다. 6월 29일 오후 8시에 개최된 라이브 방송 '넥스트레벨 콘서트'는 프리즘 앱을 통해 방송됐으며, 풍성한 경품 추첨도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훅(HOOK)'은 서울 마곡에 위치한 '더넥센유니버시티'의 초대형 미디어 월에서 상영되는 미디어아트를 배경 삼아 역동성과 모험심을 나타낸 공연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아나운서 윤태진과 함께하는 코멘터리 토크도 진행됐다. 강호찬 넥센타이어 부회장은 "이번 콜라보를 통해 MZ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친숙한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김수민 선임 인사팀, 사진. 김정호

한걸음 더 다가가고, 한마디 더 나누는 시간, 멘토링 종료식 행사





넥센타이어는 신입/경력 입사자 조직 적응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개월간의 멘토링 활동이 종료된 9월에 전국의 모든 멘토링 커플이 모여 멘토링 종료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멘토링 종료식의 목적은 멘토&멘티 커플의 관계 지속을 지원하면서 행사를 통해 다른 커플과의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멘토링 종료식은 개회식 행사에서 3개월간의 우수 멘토링 활동자를 시상하고 오후에는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만드는 감성 소통의 기술'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특강 이후 멘토링 종료식의 하이라이트인 액티비티 활동 '멘토링 챔피언스 리그'를 진행하였는데, '멘토링 챔피언스 리그'는 멘토링 3~4커플이 한 조가 되어 함께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며 조별로 경쟁하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는 '멘토링파티'로 하루 동안의 행사를 마무리하며 조원들끼리 회포를 푸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참여자들의 공식적인 멘토링은 종료되지만 멘토링을 통한 인연은 지속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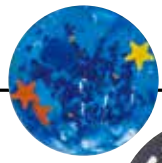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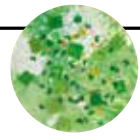


글. 김희진 책임 문화혁신팀, 사진. 김정호









상상과 호기심으로 빛나는 N젤 어린이집 미니 전시회

잊고 있던 동심을 깨우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다. N젤 어린이집의 꼬마 아티스트들이 자기만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 다양한 작품을 완성한 것!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이 가득한 작품들을 함께 감상해보자.

N젤 어린이집 마곡캠퍼스

"왜 타이어 모양은 모두 똑같을까?"라는 아이들의 호기심에서 시작한 전시. 환경 문제와 타이어를 연결해, 미래의 타이어의 모습을 완성했다. 지구를 지켜주는 타이어, 멸종 위기 동물을 생각하며 만든 타이어, 무지개 타이어 등 아이들의 작은 상상이 모였다.









N젤 어린이집 창녕캠퍼스

나뭇잎과 솔방울 등으로 여러 표정을 만들어 보고, 손과 발을 도구로 자연에 있는 생명들을 표현하며 촉각 놀이도 함께 했다.







N젤 어린이집 양산캠퍼스

단풍나무, 코스모스, 잠자리, 밤까지 가을하면 떠오르는 자연의 주인공들을 떠올리며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만들어 봤다. 아이들의 얼굴과 함께 꾸민 깜찍한 가을 풍경이다.









TIRE TECH 타이어테크 이천총판점

지난해 9월 문을 연 타이어테크 이천총판점은 젊은 기운과 힘찬 에너지가 흐른다. 구원우 점장과 직원들의 멋진 시너지 덕분이다. 그래서일까.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얼굴에도 금세 웃음꽃이 가득해진다. 오픈한 지 일 년 만에 다양한 고객층과 단골 고객을 확보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와 비결이 있을 터. 타이어테크 이천총판점 구원우 점장에게 직접 들어보았다.

타이어에 대한 애정과 사람을 향한 진심이 빛나는 곳

STATION 1







실력, 전문성, 고객 친화적인 성향까지, 고객 만족의 삼박자!

타이어테크 이천총판점은 이천 한복판에 위치한다. 덕분에 이천의 그 어느 곳이든 15~2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큰 대로변에 자리한 깔끔한 매장은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오픈한 지 일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천총판점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했으며 단골고객도 점차 늘고 있다. 구원우 점장의 실력과 전문성, 고객 친화적인 성향 덕분이다.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는 당연히 기본 중의 기본!

구원우 점장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전자공학을, 대학에서는 자동차학을 전공한 공학도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바이크 숍에서 일하면서 일찍 실무를 경험했고, 의경으로 간 군대에서는 버스 정비를 담당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중고 타이어 수출입 회사를 거쳐 타이어 매장에서 근무하며 실력을 차곡차곡 쌓았다. 서른이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경력을 보유했다는 점은 구원우 점장의 가장 큰 강점이다.

"자동차의 기하학적 구조와 운전자의 운전 습관 등을 고려해 정확한 진단 후에 타이어를 추천합니다. 넥센타이어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도 또한 고객의 신뢰를 얻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취미로 모터스포츠를 즐기고 있어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대가족인 저희 집에는 자동차만 열한 대가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부터 경기용 자동차까지 넥센타이어의 전 모델을 직접 장착해보고 얻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꼭 맞는 제품을 추천하니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구원우 점장은 이천총판점 뿐만 아니라 현재 넥센타이어 진리점도 운영 중이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진리점을 2020년 인수한 것은 넥센타이어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 덕분이었다. 구원우 점장은 일 년 만에 진리점을 전년도 대비 300% 이상 성장시키는 저력을 발휘했다.





넥센타이어에 대한 애정과 진심, 고객에게도 전해지다!

타이어테크 이천총판점은 경기용 수입 타이어를 제외하고는 판매율의 95%가 넥센타이어다. 95%의 판매율 중 35~40%는 타이어 렌탈이다. 구원우 점장은 '회사의 좋은 제도를 잘 이용한 것이 성장의 비결'이라며 미소 지었다. 사실 그는 누구보다 넥센타이어에 대한 애정이 깊다. '사람' 덕분이다.

"2011년 사회초년생으로 근무할 때 만났던 넥센타이어 영업 담당자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늘 대리점 직원의 마음을 살피면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죠. 덕분에 넥센타이어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서권역에 계신 정근영 책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현재 저와 함께하고 있는 윤승섭 책임도 제게 큰 힘이 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대리점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영업 담당자와의 시너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로에게 바라는 점을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진심으로 소통할 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요.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우 점장의 성향은 고객 상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매장을 찾는 고객은 모두 자신의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고객 상담에 정성을 다하는 것. 넥센타이어의 역사부터 타이어 시장에서의 현황까지 그의 깊이 있는 상담을 듣다 보면 고객은 넥센타이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세대별, 성별, 성향별로 고객 맞춤형 상담을 하기 때문이다.

"제 꿈이자 바람은 이천에서 타이어 맛집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20~30년이 넘는 오래되고 유명한 맛집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가면 꼭 그 집에 들러 한 끼를 먹어야 아쉬움이 남을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드는 곳요. 제가 운영하는 넥센타이어 대리점이 바로 그런 곳이었으면 합니다."

구원우 점장에게 넥센타이어는 '대들보'와 같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 함께 해왔으며, 앞으로도 같이 걸어갈 든든하고 소중한 존재! 때문에 그는 늘 진심을 담아 일하고, 그런 마음은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해진다.

이천총판점의 베테랑 노트

1 진심을 담은 상담은 반드시 통한다!

대화는 소통의 첫걸음이다. 눈빛, 표정, 몸짓, 적극성, 분위기 등 고객에게 전해지는 모든 것에 진심을 담아야 한다. 그래야 신뢰와 믿음이 형성되면서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상대의 마음에 닿기 위해서는 상담에 진심을 담아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2 영업사원과의 시너지가 성공의 지름길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일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의 노력이 필수지만, 주변의 조력자도 중요한 시너지 역할을 한다. 타이어 대리점은 영업 담당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영업 담당자와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마음을 터놓는 관계가 된다면 좀 더 빨리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3 인근 타이어 매장과 상호협력 관계를 가져라!

같은 업종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경쟁자'라 부른다. 경쟁은 가볍게 임할 때 서로에게 시너지로 작용하지만, 심각해지면 서로에게 해가 되는 전쟁이 된다. 선의의 경쟁은 미덕이다. 같은 일을 한다면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도울 일이 더욱 많다.

TIRE TECH VETERAN NOTE





◀ **타이어테크 이천총판점**
지도 보러가기

주소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494-1
전화 0507-1363-0313

STATION

VOL 93

2023
AUTUMN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독일 켈크하임에 터를 두고 있는
넥센타이어 유럽 영업&마케팅 그리고 NETC의
현장 소식을 준비했다. 또한 창녕공장 임직원들과 함께한
서프라이즈 간식 이벤트와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재활용 DIY에 도전한 가족들의 참여 후기도 함께 만나보자.

넥센 in Global
오늘도 해피타임!
우리 가족 DIY

STATION

2

글. 전경아 수석, 신호연 대리 유럽HR관리

Germany

넥센타이어 유럽 영업&마케팅 그리고 NETC

넥센타이어 유럽 영업&마케팅 그리고 NETC는 주요 자동차 메이커의 본고장인 유럽 시장에서 OE(신차용 타이어) 공급 및 RE(교체용 타이어) 판매를 확대하고자 오늘도 현장에서 한 수 위 세일즈와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유럽 진출의 중심지, 프랑크푸르트

넥센타이어 유럽 영업&마케팅 그리고 NETC(NEXEN TIRE Europe Technical Center)의 사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20km가량 떨어진 켈크하임(Kelkheim) 시에 자리하고 있다. 독일의 행정 수도는 베를린이지만 경제 수도는 프랑크푸르트라고 할 정도로 이곳은 유럽과 독일의 금융 중심지이다. 세계 최대 무역 박람회를 개최하는 대형 전시회장(Messe Frankfurt)은 물론 독일 내 이용객이 가장 많은 국제 공항이 위치해 있어 많은 한국 기업이 유럽 진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현재 삼성과 현대를 비롯하여 약 7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의 교민도 약 1만 명 이상 생활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가 좀 더 특별한 이유는 하나 더 있다. 독일 프로축구리그 분데스리가 소속 팀인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Eintracht Frankfurt)를 지난 2012년부터 넥센타이어가 공식 파트너로 활동하며 후원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20여 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명문 구단이자 우리에게는 차범근 감독이 오랜 기간 선수 생활을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여전히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위치한 빌리 브란트(Willy-Brandt-Platz) 역에는 차범근 감독의 선수 시절 사진이 붙어 있다.

Kelkheim









켈크하임 오피스, 그곳이 알고 싶다!

2017년 연구소 사옥 건축에 따라 에쉬본(Eschborn)에 있던 영업 사무소와 획스트(Höchst)에 있던 연구소가 통합 이전했다. 켈크하임 시로 사옥 건설을 계획할 때, 시 당국으로부터 넥센타이어 통근 직원을 위한 새로운 대중교통 노선을 약속 받아 2022년 2월 켈크하임 시장의 주최로 노선 개통식 후 새 노선이 운행 중이다. 약 11,000㎡ 부지에 자리한 켈크하임 오피스는 타이어 패턴에서 영감을 얻은 독특한 디자인과 넥센타이어의 상징인 퍼플 컬러로 포인트를 줬다. 대부분의 방문자와 주민들이 사옥을 보며 인상적인 건물이란 감상을 이야기할 만큼 켈크하임 시 내에서도 눈에 띄는 디자인이다.

현재 켈크하임 오피스 내에는 넥센타이어 유럽 R&D센터인 NETC와 (유)영업 1BS 산하의 (유)마케팅팀·(유)경영지원유닛·(유)ICT 지원유닛, (유)영업 2BS 산하의 프랑크푸르트 지점, (유)OE영업BS 산하 (유)영업CS팀·(유)OE영업팀 약 80여 명이 근무 중이다.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시즌 마다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가령, 추석에는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로비에 투호와 같은 전통놀이 체험존을 마련했으며, 크리스마스에는 직원들이 산타로 코스튬해 소소한 재미를 나누기도 했다.

더 넓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다

독일에는 대중적인 수준부터 고급 차량까지 다양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유럽의 가운데 위치하여 독일을 제외한 다른 유럽 지역 자동차 제조업자의 방문도 용이하다. 이러한 장점과 영업의 노력으로 현재 유럽은 넥센타이어에서 가장 많은 OE(신차용 타이어) 파트너사를 가진 지역이다.

NETC는 OE영업이 요청하는 다양한 파트너사의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여 개발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자 설립됐다. 이를 위해 독일에는 NETC 개발팀과 성능평가팀이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핀란드와 독일, 스페인에 위치한 테스트 트랙에서 타이어를 테스트하고 있다. RE(교체용 타이어)영업은 현재 (유)영업 1BS에 속한 이스탄불, 리옹, 마드리드, 밀라노, 런던 지점을 비롯하여, (유)영업 2BS에 속한 러시아 법인, 프라하, 바르샤바 지점의 본부로서 기능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으로 올해 마드리드 지점과 바르샤바 지점이 신설됐다.



Kelkheim

공간으로 만나보는 '켈크하임'

타우누스 산맥(Taunus Mountains)에 자리잡은 켈크하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적인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켈크하임 근교의 다양한 명소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프란체스코 수도원

1909년에 지어진 네오로마네스크 양식의 프란체스코 수도원은 100년이 넘도록 켈크하임을 지키고 있는 랜드마크이다.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수도원의 자태는 압도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약 30년간 산부인과 병동으로 사용돼 약 3,200명 이상의 아이가 태어난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다.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다.



향토사박물관

가족이 대를 이루는 중소 가구제조업이 발달된 켈크하임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가구공예와 함께 발전해온 켈크하임의 연대기를 살펴볼 수 있으며, 시대별 사람들이 직접 사용했던 각종 수공예품을 관람하는 재미가 있다. 또한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역사와 함께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오펠 동물원

켈크하임 근교에 위치한 오펠 동물원은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명소이다. 아프리카 코끼리를 포함해 200종 1,600마리의 전 세계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자연 서식지를 최대한 모방한 친환경적인 동물원으로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에게 교육적이고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STATION 2

창녕공장의 정오를 깨우는 서프라이즈



무더위가 지나간 자리에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9월의 어느 가을날! 〈헬로우넥센〉이
창녕공장 구성원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일상에 활력이 되어 줄 웃음 가득한
뽑기 게임과 제대로 당충전을 책임질
간식이 풍성하게 마련됐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이벤트 현장으로 함께 가보자!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자! 줄을 서시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점심 식사를 위해 구내 식당으로 향하던 창녕공장 구성원들의 발길이, 〈헬로우넥센〉에서 준비한 이벤트 부스 앞에 멈춰 섰다. 커다란 주사위와 대형 종이 뽑기판을 번갈아 보던 눈길들이 풍성하게 쌓인 선물 진열대로 향했다. 만드는 재미가 있는 와플 메이커부터 울릉도에서 날아온 호박 초콜릿, 양으로 승부하는 추억의 뻥튀기, 파이팅 메시지가 적힌 견과류 세트 등 각양각색의 선물들이 마련됐다. 빠르게 선물 스캔을 마친 창녕공장 구성원들은 본격적으로 뽑기 게임에 열을 올렸다. 조용하기만 했던 식당 앞 공간은 좋은 선물을 뽑기 위한 기합과 팀원을 위한 요란한 응원 소리로 가득 찼다. 뽑는 족족 꽝의 행렬이 이어지던 중, 드디어 첫 1등 와플메이커의 주인공이 등장하자 여기저기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1등 당첨에 대한 입소문이 났는지 순식간에 뽑기판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두 시간 남짓, 소소한 즐거움에 푹 빠졌던 창녕공장 구성원들에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힐링 포인트에 대해 물었다.





Mini interview

나의 일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힐링 포인트는?'

사랑스러운 나의 주니어들

(CP)전기파트 진명수 조장

전혀 기대를 안하고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1등에 당첨됐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한서, 한별이랑 같이 이번 주말에 맛있는 와플을 만들어 먹으려고요!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뽀독뽀독 손세차의 맛

(CP)설비파트 권형노 사원

얼떨떨한 데요?! 기분 좋은 금요일을 선물해줘서 감사합니다. 깜짝 이벤트가 기분전환이 됐어요. 평소에는 손세차가 저의 힐링 포인트예요. 가꾸는 만큼 빛나는 법! 이번 주말도 마이카와 세차하러 갑니다.

건강과 여유를 안겨준 자전거

CP생산관리팀 박상준 사원

뜻밖에 이벤트여서 그런지 더 즐거웠어요. 사보 열심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2년 전부터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아직 입문이에요~ 땀 흘리며 열심히 달리고 나면 번잡했던 생각들도 정리돼요~





소소할수록 찐 힐링

CP환경안전팀 양선혜 사원, 김보은 사원

양: 선물로 받은 뻥튀기는 팀원들이랑 나눠 먹을 거예요. 달달하고 고소한 뻥튀기 먹으면서 저의 소확행인 흘러간 옛노래 듣기에 심취할 예정입니다.

김: 사보 이벤트 소문 듣고 달려왔어요. 비록 꽝이지만 참여했단 자체가 재밌었어요. 제 힐링은 구내식당 점심 메뉴예요. 어머니의 손맛이 대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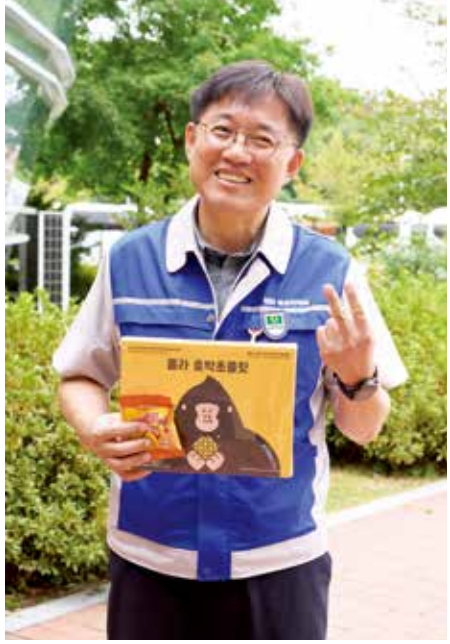
꿀맛 같은 단잠

CP생산기술팀 곽효욱 선임

어렸을 때도 뽑기를 해본적이 없었는데, 사보 이벤트로 처음 경험해보네요. 팀원들과 색다른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인성 좋은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해서 항상 행복합니다. 평소 충전을 위해 '꿀잠'만한 것이 없습니다. 선물 받은 초콜릿으로 당충전도 함께 할게요~







동료들의 행복한 미소

CP인사지원팀 박우상 팀장

재미있는 이벤트 덕분에 공장 분위기가 활기차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에 활력이 생기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선물 당첨 만큼 저의 일상에 힐링 포인트는 창녕공장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게 짓는 미소입니다. 우리 더 많이 웃는 넥센인이 됩시다!



첫돌을 맞은 우리 아현이!

CP물류운영팀 조기성 사원

올해는 유독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2023년 기운이 참 좋구나 생각했는데 오늘도 떡 하니 1등 와플메이커에 당첨이 됐네요. 1년 동안 함께 고생하는 우리 팀원들도, 이제 첫돌인 아현이도 항상 건강했으면 합니다.

뽑기의 매력에 푸-욱!

(CP)설비파트 방준혁 사원

사보 이벤트 정말 재미있었어요.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가족같은 팀원들이랑 같이 참여해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를 즐겁게 하는 힐링은 오늘 했던 '뽑기' 이벤트예요. 또 뽑고 싶어지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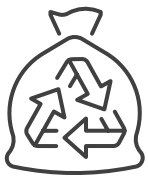


커피 찌꺼기의 업사이클링! 생명을 품은 화분으로 재탄생



카페인의 위로가 익숙한 현대인들은 까맣게 몰랐던 커피 한 잔의 불편한 진실. 하루의 피로를 깨워주는
고마운 커피지만 추출 후 대부분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커피 찌꺼기가 대기와 토양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
알고는 넘어갈 수 없다며 두 팔을 걷어붙인 넥센인들이 커피 찌꺼기로 무엇을 만들었을까?

커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일명 '커피박'이라고 부른다. 카페에서 방문객들에게 방향제로 사용하라고 무료로 나눠주는 바로 그것이다. 한 잔의 아메리카노를 만들기 위해 약 15g의 원두가 사용되는데, 이 중 14.97g인 99.8%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진다. 한국의 2018년 기준 성인 1인 커피 소비량은 연간 353잔으로 세계 평균 소비량에 2.7배에 달한다. 서울에서만 하루 140톤의 커피 찌꺼기가 생겨날 정도다.



연간 발생하는
커피박 배출 규모는?

약 **149,038**톤



버려진
커피박은?

매립 또는 **소각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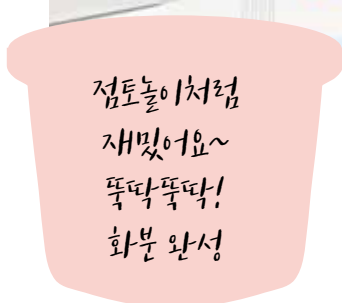
커피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산화탄소의 **34배**
온실효과 발생

문제는 대부분의 커피박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커피박을 땅에 매립할 경우, 온실가스인 메테인(CH_4)이 배출되는데, 바로 메테인(CH_4)의 지구온난화 지수가 34이다. 커피박은 이산화탄소보다 34배의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폐기물로 구분되는 커피박의 가치 있는 재활용을 위해 넥센인들은 친환경 화분 만들기에 도전했다.







개발지원팀
제한솔 책임연구원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커피 찌꺼기로 생명을 싹트게 하는 화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저희 가족 모두 놀랐습니다. 집에 소장하고 있던 재료로 화분을 더 만들어 주변에 선물도 하고, 좋은 재활용 방법을 전파하는 친환경 가족이 되겠다고 의지를 다졌답니다.







커피박 화분에서
자라날
싱싱한 토마토를
기다리며

원료개발팀
김남수 책임연구원

커피 찌꺼기로 친환경 화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2~3일에 걸쳐서 화분을 굳히고 배양토를 채우고 토마토 씨앗들을 넣어 물을 뿌려주었어요. 푯말까지 꽂았더니 멋진 화분이 완성됐습니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들이 화분을 열심히 만드는 모습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건강한 미래에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환경보호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해봤습니다. 주원아, 시원아! 아빠가 사랑해~





향긋한 커피향으로
행복한
그린 타임!

윤리경영팀
남현지 사원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화분 만들기의 아이디어가 창의적이고 환경친화적이라는 점이 좋아 참여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커피향을 좋아하는데요. 만드는 내내 집안 곳곳에서 은은하게 원두 향이 퍼져 더욱 즐거웠습니다. 작은 화분에 심은 콩이 어서 무럭무럭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Let's upcycle





아빠가 마신
커피가
화분이
되는 거예요?

CP생산기술팀
박정현 책임

아이들과 커피 찌꺼기로 화분을 만들면서 환경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화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해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이런 착한 캠페인이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 앞에서
펼쳐지는
재활용
순환의 신비!

YPMES파트
배성한 책임

이벤트에 신청하면서도 '커피 찌꺼기로 화분을? 이런 게 돼?'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 화분을 만들고 그 안에 씨앗을 심어 새로운 생명이 자라도록 하는 거잖아요. 친환경 리사이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눈으로 보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화분은 생각보다 멋져 보였고, 커피 찌꺼기의 특별한 질감과 색감이 독특한 느낌을 줬습니다.





STATION

VOL 93

2023
AUTUMN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데 영감이 되어 줄 문화 소식과 함께, 다양한 이종 사업의 결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커넥티드카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가을철 감성을 돋울 이색적인 독서 아이템과 천고마비의 계절, 식욕 억제를 위한 건강 정보를 준비했다.

컬처 가이드
미래참견시점
핫템 모아보기
365 건강백서
NEWS
함께해요

STATION

3

글. 편집실

Endless Possibilities

틀에 갇힌 고정관념에
딴지를 거는 책 한 구절이,
아티스트의 독특한 시각을
담은 작품 한 점이,
돌멩이가 되어 잔잔했던
일상에 파문을 일으킨다.
새롭고 낯선 자극이,
생각에 길을 내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무한한 가능성을 깨운다.

내 안의 무한한 가능성과 마주하는 시간

BOOK



언락

조 볼러 지음 · 이경식 번역 / 다산북스 엮음

뇌과학자인 저자는 '세상에 수학적인 인간, 문학적인 인간은 없으며, 인간은 누구나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책에서는 잘못된 교육과 사회적 압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정확히 아는 것만 말하고, 잘할 수 있는 것만 계속하게 되면서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실수와 실패가 삶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저자는 뇌 과학이 밝혀낸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인간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6가지 법칙을 정리했다.

#성장마인드셋 #가능성의_해방 #실패를_사랑하는법

아주 위험한 과학책

랜들 먼로 지음 · 이강환 번역 / 시공사 엮음

어디에도 물어볼 생각조차 못했던 엉뚱한 질문에 과학적 답을 구하는 책이다. '만약에'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면 인생은 더 재밌어질 것이란 저자는 끝없이 호기심을 펼쳐 나간다. '10억 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할까?', '달빛으로 불을 붙인다면?'과 같은 황당한 질문에 진지하게 이어지는 과학적 대답을 따라가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의 숨은 영역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뭘상상해도_그이상
#과학과_기발함의_단짠단짠
#뇌를_위한_축제





창조적 행위: 존재의 방식

릭 루빈 지음·정지현 번역 / 코쿤북스 엮음

미국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듀서로 평가받는 릭 루빈이 평생 동안 추구해온 창의적 삶의 지혜를 묶어낸 책이다. 관찰하고 기다리는 법,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 자기 의심을 다루는 법 등 창조성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어야만 존재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저자와 함께 내 안의 예술가를 깨우는 영감을 얻어보자.

#영감의_집합체 #전설의_프로듀서_생각법
#풍요의_마인드셋

EXHIBITION & PERFORMANCE



전혁림, 파블로 피카소, 앤디 워홀

K현대미술관 / 1월 31일까지

20세기 미술사의 흐름을 바꾼 세 거장의 원화를 최초로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전시이다. 동서양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이들의 만남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든다. 예약제로 관람을 제한하고 있어 거장들의 작품을 한층 더 집중해서 만나볼 수 있다. 다른 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피카소의 습작들을 관람하며 창조적 명작이 탄생하는 과정을 따라가는 재미가 있다.

#20세기_거장들의_만남
#예약제로_프라이빗하게



도시 산책자 : 울리히 뷔스트의 사진

부산 고은사진미술관 / 11월 5일까지

독일을 대표하는 사진가, 울리히 뷔스트의 40여 년 동안 활동했던 다큐멘터리 사진 100여 점을 전시 중이다. 지극히 일상적인 도시의 풍경이지만 그 안에는 작가의 탁월한 통찰과 유머, 풍자적 시선이 담겨 독특한 세계를 구현한다. 현실을 그대로 기록하지만 풍부한 서사가 담겨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관람객 역시 카메라를 들고 출사를 떠나고 싶은 충동에 사로 잡히게 된다.

#일상의_무한_해석
#나도_출사갈래
#한컷의_영감



1947 보스톤

2023년 9월 27일 개봉

광복 후 태극기를 달고 우승한 첫 국제 스포츠 대회인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서윤복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야기. 실존인물인 손기정, 남승룡, 서윤복 마라톤 선수들이 해방 이후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대회 결과를 이뤄냈던 여정이 펼쳐진다. 악조건 속에서도 마라토너로써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쳤던 인물들을 보며, 한계를 뛰어 넘어 그 무엇도 될 수 있다는 의지를 만나볼 수 있다.

#시대의_마라토너 #우리의_심장도_뛴다
#도전의지_활활

크리에이터

2023년 10월 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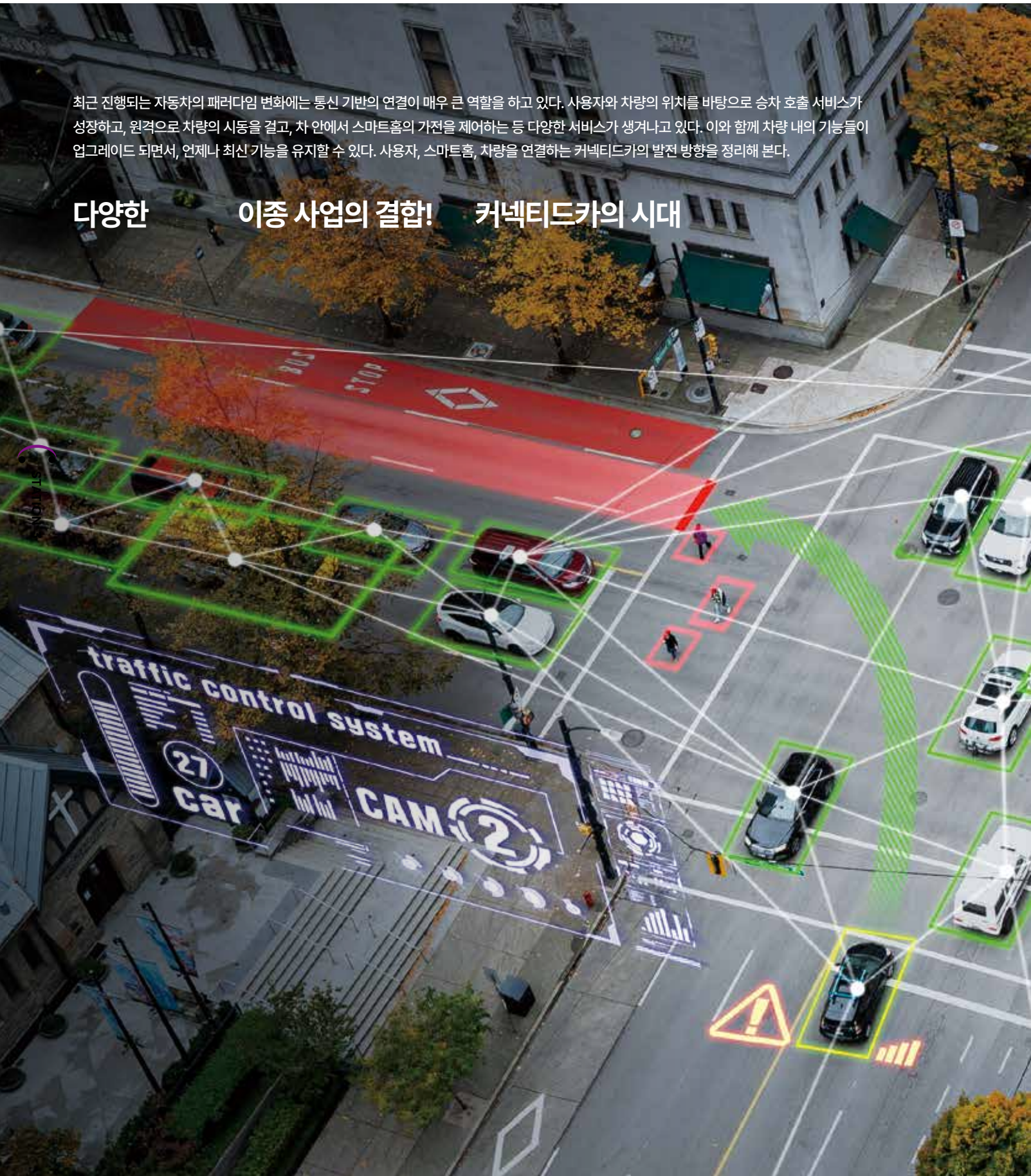
10년 전, 인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AI가 미국 LA에 핵폭탄을 터뜨리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영화다. 인류를 위협하는 AI '알피'를 발견하지만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로봇 앞에서 주인공은 인류 종말 무기인 '알피'를 제거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스스로 창작하는 챗GPT 등이 이슈가 되는 요즘, 인공지능과 우리의 지혜로운 공존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AI와_인류의_전쟁 #위험한_AI가_어린아이?!
#존재에_대한_물음표



최근 진행되는 자동차의 패러다임 변화에는 통신 기반의 연결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용자와 차량의 위치를 바탕으로 승차 호출 서비스가 성장하고, 원격으로 차량의 시동을 걸고, 차 안에서 스마트홈의 가전을 제어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이와 함께 차량 내의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언제나 최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사용자, 스마트홈, 차량을 연결하는 커넥티드카의 발전 방향을 정리해 본다.

다양한 이종 사업의 결합! 커넥티드카의 시대





Connected car



기아 커넥트 스토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아 EV9, 출처: 현대자동차그룹



LG전자, KG모빌리티의 '마이카 알람 서비스, 출처: LG전자

발 빠르게 변화하는 커넥티드카

커넥티드카는 차량 내에 통신 모듈을 탑재하여 외부와 연결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차량 내에 탑재되는 통신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기 위해서 4G·5G 등의 이동통신 기술이 필수적이다. 앞으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도로나 인프라에도 통신 모듈이 장착되어 더욱 많은 정보를 차량에 전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커넥티드카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가 생겨나고 저장되기 때문에, 자동차사와 함께 이동통신사나 IT 업체들도 커넥티드카의 진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자동차사의 구독 서비스, 주행 데이터 분석, 결제 서비스의 발전, 운전 습관 분석 및 보험 연계, 스마트홈 제어, 중고차 판매 등 서비스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다.

먼저, 자동차사들은 테슬라를 중심으로 구독 서비스의 개발이 다양화되고 있다. 차량의 특정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차량 내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차량 판매 이후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자동차사들은 텔레매틱스 서비스, 멀티미디어 서비스, 자율주행 기능, 빠른 가속 기능 등을 구독 서비스로 제공한다. 올해 출시된 기아 EV9은 기아 커넥트 스토어를 통해서 라이팅 패턴, 영상 및 음악, 원격 주차 및 출차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사와 이동통신사들이 협력하는 서비스들도 등장하고 있다. 제네시스와 LG유플러스는 카드나 휴대전화 없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문인식을 통하여 사용자를 인증하고 결제하는 방식이다. KT는 현대, 벤츠 등과 손잡고 운행 데이터 수집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주행 중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교통 상황과 돌발 상황을 분석한다. KG모빌리티와 LG전자는 차량 관련 정보를 TV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발표하기도 했다.

Face Recognition

다양해지는 미래 커넥티드카 서비스

통신 기술과 자동차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앞으로는 다양한 커넥티드카 서비스들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얼굴 인식을 통한 차량 제어, 어린이 안전 지역의 속도 제어, 원격 제어 렌터카 배달 서비스, 5G SA(Stand Alone) 기반 긴급 차량 서비스 등에서 앞으로의 커넥티드카 발전 방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차 키나 카드가 없는 생체인식 기능과 활용도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다. 현대와 GM은 얼굴을 통해서 차량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일부 모델에서 시작하고 있다. 또한, 현대와 벤츠 등은 지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체 인식 기술의 적용과 서비스의 개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EU는 지난 2022년 위치 기반 속도 제한 기능인 ISA(Intelligent Speed Assistance)를 의무 적용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ISA 기능은 차량이 속도 제한이 있는 지역을 지날 때에 차량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ISA의 기능 구현에는 4단계가 있으며 소리로 알림을 주거나, 운전석에 진동을 주거나, 가속 페달을 강제로 뒤로 밀거나, 강제로 가속 페달의 전원을 차단해 줄 수 있다. 앞으로 자율주행의 진화와 맞물리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네시스의 페이스 커넥트 시스템, 출처: 제네시스





지난 6월 헤일로닷카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무인 원격 운전 기반 렌터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용자가 렌터카 주차 장소로 오는 대신에 원격 운전으로 사용자 집 앞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이다. 1년간 안전운전자가 탑승한 채로 시범 서비스를 해왔던 헤일로닷카는 안전운전자 없이 차량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원격 운전은 앞으로 도심 자율주행 진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난 MWC23에서 통신 장비 업체인 에릭슨은 5G SA 기반 긴급 차량 서비스를 전시했다. 5G 단독모드에서는 특정 서비스에 네트워크 용량을 배정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지난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크루즈 자율주행차가 멈추면서 큰 혼란이 왔다. 여기에 대형 행사가 겹쳐 통신 트래픽이 넘치면서 자율주행 차량의 통신이 끊겨서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앞으로의 자율주행 운행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MWC23,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적용을 발표하는 폭스바겐, 출처: CARIAD 유튜브

automotive





헤일로닷카의 차량 원격 제어, 출처: 헤일로닷카

통신과 자동차 융합을 위한 노력

커넥티드카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과 통신 산업의 융합이 필수적이다. 커넥티드카의 본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벤츠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를 계약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64개의 이동통신사와 개별 계약이 필요하다고 한다. 여기에 각각의 이동통신사와 서비스를 개별로 개발하다 보면 개발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 MWC23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이동통신사의 노력이 제시되었다. 이동통신사들이 API를 통합하여 자동차사에게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커넥티드카 서비스의 개발이 쉬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WC23에서 독일의 도이치텔레콤과 미국의 티모바일은 API의 통합을 발표하기도 했다. 즉, 독일 도이치텔레콤 API로 개발된 자율주행차는 미국 티모바일에서도 그대로 사용 가능하게 된다.

차량에서의 안드로이드 확산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 구글은 지난 2017년 안드로이드를 차량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주요 자동차사들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다.

커넥티드카에는 '결국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차량 판매 이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도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역사를 갖고 있다. 자동차-통신-IT-서비스의 융합을 통해서 국내 업체들이 커넥티드카 시장을 주도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

'읽어야지. 읽어야지'를 되뇌면서도 책장 하나 넘기기가 천근만근인 당신을 위해, 책읽기에 신박한 변화가 일었다. 텍스트가 가진 한계를 넘어 시·청각 요소를 더한 도슨트북과 이야기와 향수를 매칭한 북퍼퓸, 감각적인 스타일로 책읽기에 멋스러움을 더하는 소품들까지!
이번 가을은 읽지 않고 서는 못 배길 독서의 치명적 매력에 빠지게 될 것이다.

때론 멋스럽게, 때론 스마트하게!

평범함을 거부한 '독서의 반란'

웹툰 형식에 전문가 설명까지!
친절한 도슨트북

Willie

밀리의 서재

가볍게 펼쳐 든 소설이지만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을 몰라 금세 흥미를 잃고 책장을 덮었던 경험, 누구나 있을 것이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책을 볼 때도 궁금증을 풀어줄 전문 해설가가 옆에 있다면 깊이 있고 재미있게 읽지 않을까? 그 물음에서 탄생한 것이 '도슨트북'이다.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서 선보인 도슨트북은 베스트셀러를 웹툰이나 카드 뉴스, 챗북 등으로 도서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어 독서 진입의 장벽을 낮췄다.
도슨트북 『위대한 게츠비』의 경우, 시각과 청각 요소를 더한 웹툰 이야기가 끝나면 이어서 미국사 전문가 김봉중 교수가 1920년대 당시 미국의 경제와 캐릭터를 함께 분석한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은 웹툰과 함께 에피소드를 대화 형태로 볼 수 있는 챗북을 사용해 실제 소설 속 사연자와 대화를 나누는 기분을 들게 한다. 전문 해설가의 손에 이끌려 눈과 귀가 즐거운 이야기에 빠져 있다 보면 책 한 권 완독은 거뜬히 해낼 수 있다.



디지털 디톡스! 책과 함께 하룻밤
느림의 미학, 북스테이

공간이 주는 힘이 있다. 책으로 둘러 쌓여 있는 편안한 분위기의 북스테이 숙소에 들어서면 저절로 독서에 대한 열망에 사로 잡힌다. TV가 있을 자리에는 탁 트인 풍경을 머금은 커다란 창이 펼쳐지고 손 닿는 곳마다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이 여행객을 반긴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온종일 책과 시간을 보내는 북스테이는 공간과 독서가 어우러진 새로운 책읽기라고 할 수 있다.



갖가지 서울 이태원

멀리 떠나지 않고 도심 속에서도 책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곳! 맛집과 핫플레이스로 소문난 이태원에 책 덕후들의 아지트로 유명한 북스테이 '갖가지'가 있다. 소파 옆, 침대 아래, 벽 등 곳곳마다 꽂혀 있는 책들을 훑어보다 마음 내키는 제목에 이끌려 무작정 독서를 시작해도 좋다. 함께 들으면 운치를 더할 LP와 신선한 차가 준비돼 있어 책 읽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다.







오바이북 경북 청도

청도의 고즈넉한 마을에 위치한 '오바이북'은 서점과 카페, 브런치 식당, 북스테이션이 가능한 곳이다. 1만 권이 넘는 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마다 문학동네 시인전, 사랑과 우정, 쉼, 그리고 삶이란 4가지 테마로 책 큐레이션이 되어 있다. 숙소에서 보고 마음에 든 책은 구입할 수 있으며 중고책을 가지고 오면 아메리카노 한잔을 교환해주기 때문에 나눔 할 책을 챙겨오는 것도 좋겠다.

코끝까지 다가온 책의 이야기
책과 향수가 만나다 '북퍼퓸'

눈으로 본 것은 3개월 후 절반만 생각나지만, 냄새로 인식한 기억은 1년이 지나도 65% 이상 정확하게 남아 있다고 한다. 후각은 당시 상황의 감정까지 함께 소환하기 때문이다. '책을 읽기는 했지만 시간이 흘러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을 때 향기를 활용하면 어떨까?'란 아이디어로 탄생한 북퍼퓸! 책마다 담겨 있는 이야기의 분위기와 연상되는 전경, 작가의 마음을 헤아려 조향사들이 만든 향수다. 책에 북퍼퓸을 분사하면, 읽는 내내 향기와 함께 할 수 있다. 가령, 『어린왕자』에는 어린시절 따스한 봄날의 오후를 연상시키는 꽃과 과일 향기가 담긴 북퍼퓸을 뿌려 감상하는 식이다.

북퍼퓸 전문 판매처

글입다

자화상



『작은아씨들』
& 봄꽃과
풋사과향을 담은
프레쉬 플로럴향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시원한 밤하늘의 그리움
스트러스 그린향



『어린왕자』&
솜사탕을 연상하는
프루티 플로럴 향



북레스트

모던한 독서템으로
스타일 사는 나의 서재

최근 디자인 전문 쇼핑몰에서 독서 관련 소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책이 갖고 있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배가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간 인테리어에도 한몫 하는 핫한 독서템들을 만나보자.

북레스트
책을 읽다가 중간에 덮어 놓으면, 다시 들추기가 쉽지 않다. 책갈피가 있지만 작아서 자주 잃어버리게 된다. 북레스트는 독서를 잠시 쉴 때 책도 함께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손 쉽게 덮어두고 다시 집어들 수 있어 책갈피이자 스탠드 역할을 동시에 한다. 한 권의 책을 완독하는 습관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작은 수납 공간이 있어 안경과 메모장 등을 넣어 놓을 수 있다. 테이블이나 거실에 두면 그 자체만으로도 인테리어 효과가 있다.

문진
어린시절 서예 시간에 화선지가 움직이지 않게 눌러 놨던, 기다란 모양의 쇠로 만든 문진을 기억할 것이다. 책장이나 종이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누르는 '문진'이 화려하게 변신 중이다. 크리스탈로 만들어 그 안에 꽃이나 도시 풍경, 우주 등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어 보유하고 있는 사진으로 커스텀하는 경우도 있다.

북라이트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했던 일반 스탠드형 조명 대신 크기부터 모양까지 다양한 감성 무드등이 인기다. 그 중에서도 책 모양을 하고 있는 '페이지 라이트'는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LED 조명이라 예쁘면서도 친환경적이다. 낮에는 볕이 잘 드는 창가에 놓아 충전을 하면서 평범한 거실을 북카페로 연출할 수 있다.

우드 독서링
엄지 손가락에 끼워 사용하는 독서링은 책갈피 사이를 눌러 지지해주기 때문에 책을 볼 때도 편하고, 들고 있는 힘이 덜 들어가 손목도 무리가 덜하다. 나무로 만들어 따뜻한 느낌을 주며, 엄지 손가락 굵기에 맞게 사이즈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북라이트


문진


우드 독서링

용도에 따라 각양각색 독서앱

통계 끝판왕 '북플립'
다른 사용자들의 서재도 구경할 수 있으며, 책을 클릭하면 사람들의 선호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내 서재 분석] 기능이 있어서 독서 방향과 목표를 세우기에 효과적인 앱. 읽은 책들의 카테고리를 분석해, 선호하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확장형 독서가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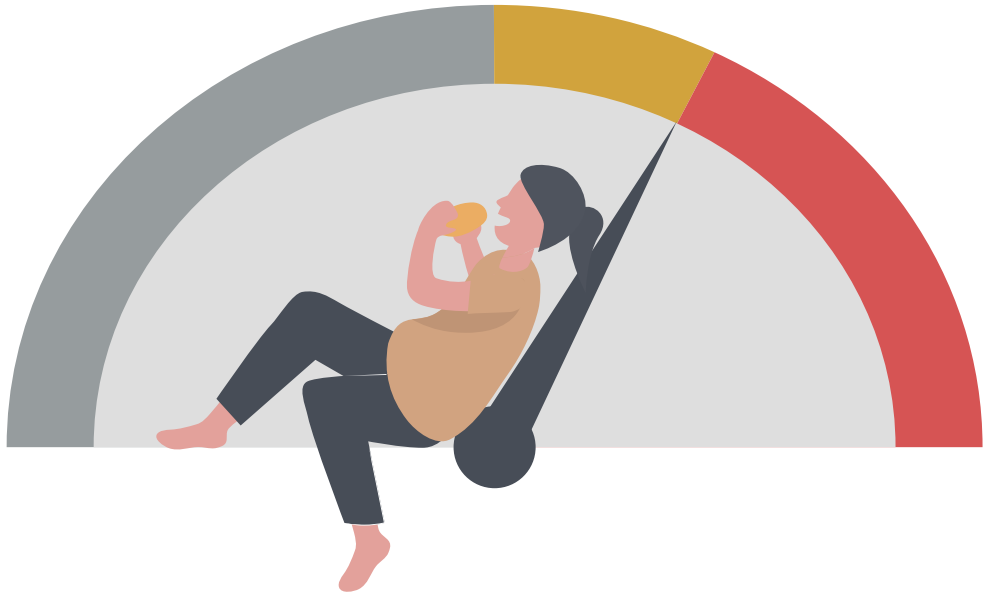
독서량 늘리기 '북적북적'
책의 탑을 쌓아 독서량을 체크하는 앱. 읽은 책을 입력하면 차곡차곡 쌓이는 게 뿌듯하고 일정 높이가 되면 새로운 캐릭터를 얻을 수 있어 독서의 소소한 동기부여 역할을 한다. 책을 입력할 때는 검색하거나 바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읽은 책 등록이 편리하다.

책 덕후들의 커뮤니티 '리더스'
읽던 구절이 마음에 들면 사진을 찍고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 나만의 문장을 한데 모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북클럽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어려운 책을 완독하는데 도움이 된다.

말도 찌고 나도 찌고!
걷잡을 수 없는 식욕의 계절

가을철의 서늘한 날씨와 줄어든 일조량이 식욕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천고마비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 계절을 핑계 삼아 입맛이 돋는다고 한정없이 먹다 보면, 불어난 체중으로 인해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 수도 있다. 오늘도 먹방을 보다가 야식을 주문하고 있는 당신! 가짜 식욕을 멈춰야 할 때다.





하루의 보상? 심리적 공복이 만든 '가짜 식욕'

신체적인 배고픔은 영양소를 채우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슬플 때 느끼는 감정적 허기는 '가짜 식욕'이다. 먹고 나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고 싶다면 심리적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 식욕과 가짜 식욕을 구분하고 싶다면 허기를 느꼈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된다. 음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배를 채우고 싶다면 진짜 식욕, 달거나 매운 것처럼 특정한 음식을 먹고 싶다면 가짜 식욕일 확률이 높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분비되는 '코르티솔'이 당분과 지방, 나트륨 등에 대한 식탐을 높이기 때문이다.

바쁘게 보낸 하루의 보상처럼 야식을 찾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습관적으로 밤마다 순간의 식욕을 참을 수 없어 자주 먹는다면 '야식증후군'일 수 있다. 야식을 먹어서 살이 찌는 것도 문제지만, 수면 직전에 음식을 섭취할 경우 고혈압, 혈당 장애와 같은 각종 대사증후군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해 불면증이 발생하고 이는 스트레스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우리를 괴롭히는 가짜 허기짐을 이겨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야식증후군 진단 체크리스트

- ☐ 저녁 시간에 식사를 몰아서 한다
- ☐ 하루 음식량 중 50% 이상을 저녁 7시 이후 섭취한다
- ☐ 아침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아침에 식욕이 없다
- ☐ 일주일 중 3일 이상 밤중에 1번 이상 깬다
- ☐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고칼로리 간식을 먹는다
- ☐ 위와 같은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됐다

식욕을 잠재우는 날씬한 식탁



블랙 & 보색, 그릇의 색깔이 이렇게 중요해?

일반적으로 노랑, 주황, 빨간색이 식욕을 돋우고, 파랑과 보라, 검정, 회색이 식욕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 패스트푸드와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빨간색과 노란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색상 자체가 달콤함과 상큼함을 연상시켜 입맛을 돋우기 때문이다. 반대로 파랑과 검정색은 음식과 연결했을 때 부패, 독, 쓴맛을 떠올리게 해 식욕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검은 그릇의 경우, 담겨 있는 음식 색의 채도까지 떨어뜨려 과식 방지에 효과적이다.

이 외에도 음식과 그릇의 색이 비슷하면 양이 많아 보이지 않아서 자신도 모르게 음식을 더 담게 되기도 한다. 가령 크림파스타를 하얀 접시에 담았을 때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과 그릇 색이 대비되도록 담으면 먹는 양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기 크기는 작게! 간식은 소포장으로

그릇의 크기를 줄이면 음식을 담았을 때 양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일명 델푸스 착시라고도 부르는데 코넬대 식품브랜드연구소에 따르면 접시 크기를 30.5cm에서 25.4cm로 바꾸기만 해도 식사 섭취량이 22%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다. 우선 식기의 크기를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아이스크림의 경우 큰 통을 하나 뜬어서 먹다 보면 얼마나 먹고 있는지 양을 가늠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포장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폭식을 막을 수 있다. 과자와 같은 간식 역시 한 통에 대량으로 담겨 있는 것보다 소포장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구입하자.



주방 가득한 페퍼민트 & 라벤더 향기

특정한 향기를 맡는 것도 식욕에 영향을 준다. 후각에서 감지한 향기 정보를 뇌에 전달하면 포만감을 느끼는 렙틴 호르몬이 분비돼 식욕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페퍼민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두 시간에 한 번씩 페퍼민트 향을 맡은 사람은 배고픔에 대한 충동이 줄어서 1주일 동안 평균 2,800kcal를 덜 먹는다고 한다. 페퍼민트는 정신을 맑게 하는 동시에 음식에 집중된 신경을 분산시켜, 천연 식욕 억제제로 활용된다.

라벤더 향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해서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준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숙면에 도움을 주는 라벤더 향은 양질의 수면을 유도함으로써 배고픔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를 낮출 수 있다.





소식좌는 느릿느릿!
적은 양을 오래 씹기

연예계 소식좌로 알려져 있는 개그우먼 안영미와 가수 코드쿤스트, 모델 주우재의 소식 먹방이 대세다. 그들의 공통점은 적은 양의 음식을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씹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은 식사를 한지 15~20분이 돼야 분비되기 때문에 빨리 먹으면 먹을 수록 포만감을 느낄 새가 없어서 과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음식물을 입에 넣고 평균 30번 정도 씹고 넘기는 것을 권한다. 씹는 운동은 뇌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보상 심리에서 시작하는 가짜 식욕을 낮춰줄 수 있다. 렙틴 호르몬의 경우는 수면이 부족할 때 수치가 하락하면서 식욕을 올리기도 한다. 숙면하지 못하는 것도 포만감을 느끼는데 영향을 미친다.

식전 30분 물 한 잔,
식후에 차 한 잔!

식사를 하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면 부드럽게 위를 채우며 포만감을 느끼해서 덜 먹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 때론 몸이 물을 필요로 할 때 이를 배고픔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물을 섭취하는 것이 식욕 조절에 효과적이다.

식후에는 또 다른 음식을 더 먹지 않도록 허브차나 녹차를 마시도록 한다. 차를 마시는 것 자체가 소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먹고자 하는 충동을 줄여줄 수 있다. 실제 녹차의 '카네킨' 성분은 식욕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포만감을 부르는
'단백질 & 섬유질 사수'

생리적으로 식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제시간에 해야 된다. 채소와 과일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두부, 콩, 닭가슴살, 살코기 등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을 수 있다. 조리하지 않은 생채소는 섬유질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당근이나 파프리카, 셀러리 등을 작게 잘라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먹게 되면 포만감을 높여서 식사량을 줄이게 된다.

HELLO NEXEN NEWS 1



넥센타이어, 폭스바겐 SUV '아틀라스' 차량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넥센타이어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의 '아틀라스' 차량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9월 11일 밝혔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되어 출시된 '아틀라스' 모델은 북미 시장에 특화된 대형 SUV로 폭스바겐의 최신 플랫폼 MQB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 중 가장 큰 차종이다. 여기에 3열 시트, 최첨단 운전자 지원 기능 장착, 그리고 고급 자재를 사용해 프리미엄 인테리어로 새롭게 디자인됐다.

아틀라스에 공급되는 넥센타이어의 '로디안 GTX(Roadian GTX)'는 SUV 전용 제품으로 제동성능, 눈길성능, 마모성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하며 최적의 밸런스를 제공한다. 특히, 순간적인 고하중의 압력과 타이어의 변형에서도 트레드 블록이 견딜 수 있는 차세대 신규 컴파운드 적용을 통해 강화된 마모성능이 특징이다.

여기에 지면으로부터의 압력을 분산시키는 지그재그형 트레드 설계로 순간 쏠림 현상을 최소화했으며,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성능 및 눈길성능을 동시에 보완한 접지성능 강화로 더욱 안정적인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폭스바겐의 골프를 비롯해 제타, 폴로와 캐디 등에 지속적으로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폭스바겐과 파트너십을 확대해 오고 있다.



넥센타이어, 미국 '2023 IDEA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넥센타이어가 미국 '2023 IDEA 디자인 어워드' 컨셉 디자인 부문에서 'Mearth' 컨셉 타이어가 본상(Finalist)을 수상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올해 43주년을 맞은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산업디자인협회(IDSA)가 주최하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 디자인 상으로,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글로벌 3대 디자인 상으로 꼽힌다.

매년 디자인 혁신성, 사용자 경험,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한다. 넥센타이어의 이번 수상작은 부산디자인진흥원의 KDM+(Korea Design Membership Plus) 소속 제품디자인 분야 학생들과 산학협력을 통해 디자인된 결과물로, 인류의 우주 개척에 초점을 맞춘 미래 컨셉 타이어다. 'Mearth(Mars+Earth)'는 우주 공간인 화성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트랜스 폼 타이어로, 특수 소재를 통해 트레드 면적을 넓혀 주행성을 향상시키는 모드와 사이드월 구조가 돌출되어 화성의 척박한 땅을 개간할 수 있는 모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유니크한 디자인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ELLO NEXEN NEWS 3

넥센타이어,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 '유벤투스 FC' 공식 후원



넥센타이어가 이탈리아 세리에 A의 명문 축구 구단 '유벤투스 FC'를 공식 후원한다고 7월 19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유벤투스 FC'는 1897년에 창단해 이탈리아 피에몬테주 토리노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역사가 깊은 명문 구단이다. 파트너십 체결식은 '유벤투스 FC'의 홈구장인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넥센타이어 김대중 유럽영업1BS(Business Sector)장과 유벤투스 구단의 티지아나 디 조이아 최고영업책임자(Chief Commercial Officer, CCO)가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유럽 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 및 축구팬을 대상으로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유벤투스 구단 홈경기장인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LED A보드 및 대형 스크린을 통해 브랜드와 제품을 노출하고 구단 로고 사용 권리, 선수 이미지 사용 권리, 경기장 내 고객 초청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이탈리아 세리에 A의 '유벤투스' 뿐만 아니라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시티'와, 분데스리가의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체코 프로축구단 'SK슬라비아 프라하' 등 유럽 축구팀을 공식 후원해오며 유럽시장에서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있다.

HELLO NEXEN NEWS 4

넥센타이어, SBS '문명특급'과 '맨시티' 콘텐츠 콜라보 제작



넥센타이어가 맨체스터 시티(맨시티) 내한을 기념해 SBS '문명특급'과 콜라보로 제작한 콘텐츠 2편을 8월 10일에 공개했다. '문명특급'은 SBS 웹 예능으로 숨듣명(숨어 듣는 명곡), K팝,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맨시티' 파트너로서 축구 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문명특급'과 콜라보 콘텐츠를 기획했다.

먼저, 1편에서는 장지현 축구 해설위원이 출연해 맨시티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맨시티의 홀란드, 필 포든, 리코 루이스 선수가 넥센타이어 브랜드가 랩핑된 버스에 탑승해 인터뷰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2편에서는 넥센타이어 강호찬 부회장이 직접 출연해 '문명특급' MC 재재에게 맨시티 유니폼을 선물하는 장면이 담겼다. 여기에 오락실 탐방, 유러피언 트레블 달성 축하 파티가 이어지고 홀란드 닮은꼴로 주목받고 있는 개그우먼 엄지윤도 등장해 재미를 더했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어린이 풋볼 아카데미, 고객 대상 SNS 이벤트 실시 등 프리시즌 기간 중 7월 말에 한국을 방문한 맨시티를 활용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HELLO NEXEN NEWS 5

넥센타이어, 지속가능경영 성과 · 로드맵 담은 ESG 보고서 발간



넥센타이어가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2022/23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2020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며 ESG 분야별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오고 있다.

보고서에는 ESG 전략과 주요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률 100%(RE100)에 대한 달성 추진 계획과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통한 개선과제, 인권경영에 대한 전략을 공유했다.

여기에, 지속가능한 원재료 연구를 통해 친환경 원재료 52%를 적용한 컨셉 타이어 개발, 생물다양성을 위한 아름다운 숲 가꾸기 등 환경과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ESG 전략과제 이행을 위해 CEO 산하 지속가능 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담 조직인 ESG팀을 설립해 ESG 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을 내재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최근 UNGC에 회원사로 가입하고 인권, 노동, 환경 등 10대 원칙을 준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글로벌 ESG 평가 플랫폼인 '에코바디스'에서 2년 연속 Silver 등급을 획득했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실시한 ESG 평가에서는 지난해보다 1단계 개선된 'BB'를 획득했다. 이밖에, 기업의 ESG 리스크를 평가하는 '서스테이널리틱스'에서는 리스크 위험 노출 수준 'Low(로우)' 등급을 받는 등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HELLO NEXEN NEWS 6

넥센타이어 임직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기증



넥센타이어가 7월 12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을 기증했다. 기증식은 넥센타이어 Global HR 김해천 BS(Business Sector)장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서선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곡에 위치한 넥센중앙연구소 '더넥센유니버시티'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증된 300장의 헌혈증서는 넥센타이어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헌혈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다. 넥센타이어는 양산공장, 창녕공장, 넥센중앙연구소 등 각 사업장에서 꾸준히 헌혈 캠페인을 펼쳐 오고 있다.

기부된 헌혈증은 치료 과정에서 수혈이 필요한 소아암 환아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헌혈증은 헌혈 시 혈액원에서 지급하는 증서로, 수혈에 드는 비용 중 혈액팩 등 본인부담금을 공제할 수 있기에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넥센타이어는 "임직원들이 참여해 모은 헌혈 증서가 소아암 환아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ESG 경영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ELLO NEXEN MAGAZINE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사내 특별한
소식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헬로우 넥센〉
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문화혁신팀 김희진 책임
hellonexen@nexentire.com

STATION 3

〈헬로우 넥센〉 가을호 이벤트 참여

〈헬로우 넥센〉
웹진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하단의 QR 코드 스캔하기

▼

이벤트 참여하기

▼

인적사항 기입

▼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프티콘 증정)

당첨자 확인과 상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N'FERA supreme S

흡음재 & AI 테크놀로지 적용으로 극대화 된 승차감

마모되어도 최대한 유지되는 주행 성능

고성능 / 고하중 차량 최적화

더욱 좋아진 연비 효율성까지



NEXEN TIRE

we got you


NEXEN TIRE
OFFICIAL PARTNER OF
MANCHESTER CITY FOOTBALL CLUB
WINNERS
ON THE ROAD
NEXEN
NEXEN TIRE
we got you